



忠北大同門會報



2024년 2월 29일 목요일 제55호

발행인 : 윤양택 편집인 : 어강석



총동문회장 신년사



총동문회장
윤양택

존경하는 충북대학교 20여만 동문 여러분!

청룡의 기운으로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교의 미래 100년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총동문회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동문들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자 합니다.

지난해 총동문회는 3년 만에 200여명의 동문들이 참여하는 2023 신년회 개최를 시작으로 상임이사회 및 제69차 정기총회, 제20회 총동문 골프대회, 제29회 총동문 가족체육대회 등을 성황리에 잘 마쳤으며 제53호, 제54호 동문회보 발간과 더불어 6년 만에 동문 주소록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글로벌30 대학 선정에 있어서도 동문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상임이사회 개최 및 대학 통합 찬성 성명서를 발표하여 모교 정책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산하 동문회 활성화를 위해 산하 기관·단체 동문회와 수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동문 여러분!

우리 모교는 지난해 글로벌30 대학에 최종 선정되어 향후 많은 변화와 발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모교에서도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으나 이런 변화와 발전에 동문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할 때입니다.

학령인구 감소, 수도권지역 대학과의 격차 심화, 졸업생들의 취업난 가중 등 지방대학의 위기인 지금, 변화하지 않는다면 대학을 넘어 지역사회까지 위기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교직원, 학생은 물론 동문들까지 지혜를 모아 어려움을 헤쳐 나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동문들의 단합된 마음 하나하나가 모교 발전의 초석이 된다고 생각하며 작은 정성과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또한 올 4월에는 총선이 있으며, 이번 총선에서도 많은 동문들이 출사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후보로 나서는 동문들이 당선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힘을 모아주시길 소망합니다.

총동문회에서는 갑진년 새해에도 더 많은 동문들의 뜻을 모으고 동문간의 네트워크를 확장하여 의미 있는 교류를 통해 동문들 간의 유대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개교 73주년을 맞이하는 2024년에도 동문들의 관심과 참여로 더욱 빛나는 총동문회를 만들어 주시고 모교의 발전과 함께 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동문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장 신년사



총장
고창섭

안녕하십니까! 충북대학교 총장 고창섭입니다.

사랑하는 충북대 동문들께 인사드리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희망찬 갑진년(甲辰年)은 청룡의 해로 비룡재천(飛龍在天)의 기상을 떨치는 해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우리 동문 여러분들도 하늘을 나는 청룡의 힘찬 기운을 받으셔서 모두가 더 행복하고 더욱 발전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년 우리 충북대는 많은 변화의 물결이 있었습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전국의 국·사립 대학과 경쟁하여 글로벌 대학에 당당히 선정됨으로써 앞으로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모두 충북대 구성원과 동문이 함께 노력하여 이룬 성과입니다. 그 과정에서 통합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총동문회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문 여러분!

2024년 갑진년, 우리 충북대학교는 청룡의 기운을 받아 더욱 힘차게 날아올라야 합니다.

올해는 글로벌대학 사업이 실질적으로 시작되는 본격 통합 준비의 중요한 해입니다. 한국교통대학교와의 통합은 우리 대학 발전에 매우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기에,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적인 통합을 이끌기 위한 20여만 동문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전폭적인 성원이 절실합니다.

또한 우리는 충북을 아우르는 거점 대학으로, 나아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립대학으로 비상하고자 합니다. 우리 대학의 평판도, 강의 품질, 그리고 연구력 향상을 위해 각종 제도를 개선하는 등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학생들이 충북대학교에 오고 싶도록 강의실, 취업지원실, 도서관 등을 최첨단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식당과 카페 등도 학생들이 좋아하는 환경으로 바꾸어 학생들이 학교에 더 머물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 외 충북대학교 박물관 신축, 첨단 강의동 신축, 의과대학 1호관 리모델링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동문 여러분께서 사랑하는 모교를 더욱 찾으실 수 있도록, 더욱 자부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새로운 도약의 힘찬 발걸음을 시작하고 있는 우리 충북대에 앞으로도 동문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아낌없는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직장과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황동민 편집위원)



충북대학교 제32대 교수회장 박종진 교수



지원 및 경력 개발 프로그램의 운영도 매우 중요하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대학 경영과 학내 구성원들을 통합하고 대학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강력한 연대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운영될 때 충북대학교는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70년간의 양적 성장과 미래지향적 대학 운영을 통한 질적 성숙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100년을 향한 새로운 대학 교육의 패러다임을 구축하여 최고의 대학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Q5 모교의 교수회장으로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충북대학교 교수회는 대학의 자율성과 학문의 자유를 수호하고, 교수님들의 권익과 복지를 향상하며, 교수사회의 민심을 대변하여 본부의 행정을 감시하고 그 문제점에 대해 비판함으로써 학교 발전을 위해 합리적인 균형자의 역할을 하는 전체 교수들의 중요한 대의 기구입니다.

교수회의 정체성을 지키고 민주적인 명분과 절차에 따라 진정한 대학다운 모습을 찾고자 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수회의 위상을 재확립하고 교수사회가 진정한 학교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통대와의 통합에 대해서도 통합 논의의 추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문제점이 있으면 비판하고 개선을 요구할 것입니다.

Q6 마지막으로 동문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문 여러분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은 충북대학교의 발전과 학내 구성원들의 성장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업적은 대학의 영광이며, 이를 바탕으로 더욱 성장하고 발전된 대학의 모습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대학은 더 나은 교육과 연구, 다양성을 존중하는 환경,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동문들께서 함께 참여하고 동참하여 대학을 더욱 성숙하고 높은 수준으로 이끌어 주시길 기대하며, 저 또한 앞으로의 여정에서 만남과 소통을 소중히 여기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새로운 한 해가 우리에게 더 큰 성공과 행복을 안겨주길 기대하며 모두에게 건강과 번영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어강석 편집위원>

Q1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문 여러분!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충북대학교 제32대 교수회장으로 선출되어 동문 여러분께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더불어 향후의 대학 발전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저의 역할을 생각하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늘 함께하고 계신 동문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새로운 도전과 성취를 이루는 2024년이 되시길 기대합니다.

저는 1999년 충북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에 부임하여 25년 동안 봉직해 오면서 충북대로부터 과분한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모교의 강단에 설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무척 영광스러웠고, 체육진흥원과 교육대학원장, 그리고 사범대학장과 학생처장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충북대 발전을 위해 노력한 시간은 행복하고 보람찬 나날이었습니다.

이제 그 과분한 사랑을 대학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보답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충북대학교를 위해 교수회장으로서 마지막 열정을 다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Q2 충북대학교 교수회장으로 출마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대학 사회는 여러 가지 방면에서 쉽지 않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 학생들의 수도권 집중 현상 등으로 지방대학의 미래는 갈수록 불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현실을 우리 대학이 슬기롭게 극복하는 데 일조하고자 교수회장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보직을 수행하면서 쌓은 학교 행정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업무 추진 능력을 바탕으로 남은 시간 희망찬 충북대학교의 미래를 위해 헌신하고자 합니다.

Q3 현재 우리 학교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학의 최우선 과제는 학문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동시에 학생들의 다양한 성취를 증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 분야에서는 미래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학문적 호기심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필요가 있고, 연구 분야는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연구자들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다양성과 포용을 강화한 교육환경의 조성, 인문사회적 소양을 갖춘 융합형 인재의 양성, 글로벌 수준의 교육 및 연구 경쟁력을 갖춘 대학,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 등을 통해 지역 거점대학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대학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Q4 충북대의 성장과 도약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대학은 학령인구 감소, 대학의 구조조정, 국제적 경쟁의 심화 등 만만치 않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대학은 단일한 성과관리나 교육부의 줄 세우기에 일희일비하는 방식이 아닌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대안 마련과 철저한 준비, 혁신적인 마인드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충북대학교의 성장과 도약을 위해서 몇 가지 핵심적인 측면들을 요약해 본다면, 품질 높은 교육 및 연구 활동과 혁신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이며, 연구 성과를 위한 지원 강화와 포용적인 교육환경 조성, 글로벌 시민성 강화에도 힘써야 합니다. 또한 산학협력 및 산업 네트워크 강화와 취업

충북경제자유구역청
김진석 본부장



충북대 동문들에 본인 소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영대학 무역학과 86학번이고 '93년에 졸업했습니다. '95년 지방행정직 7급에 합격한 후 '96년부터 청주에서 공직을 시작하여 현재는 충북도청 내 사업소인 충북 경제자유구역청 본부장의 소임을 맡고 있습니다. 직급은 지방행정부 이사관(3급)입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 본부장으로 활동 중인데 소감과 어떤 일을 하는지 알려주시지요?

2023년 영동군 부군수의 소임을 성실히 마치고 금년 1월 1일부로 도청 재난안전실 안전정책과장으로 부임했다가 2월 1일자로 승진하면서 충북 경제자유구역청 본부장으로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경영학도로서 주요 업무(보직 경로)를 경제와 관련하여 주력하려 했으나 기회가 되지 않아 다른 분야 행정업무를 하다가 이번에 내 몸에 맞는 보직을 맞게 되어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전국에 경제자유구역이 9개가 있는데 충북은 오송지역(바이오메디컬, 바이오폴리스)과 오창지역(청주공항 인근의 에어로폴리스 지구)에 설정되어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내에 입주한 기업(특히 외국계 기업)에 여러 가지 혜택을

주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요 현안으로는 오송을 국제도시화 하려 노력 중이고(국제학교 유치 및 설립 등) 경제자유역을 더 확대하여 명실상부한 중부권의 핵심 도시로 만들고자 합니다. 또한 청주 국제공항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활주로 연장, 민간 활주로 조성, 항공 관련 산업 유치 및 육성 등)

어떤 계기로 공직에 뛰어들었고 어떤 과정을 거치셨는지요?

대학 4학년 때 전문 딜러(주식시장) 관련 연수를 받다가 일반 기업보다는 공직에서 근무하는 것이 더 보람되지 않을까 생각되어 공무원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95년 지방직 7급시험에 합격하여 공무원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96년 청주시 사직1동에서 근무를 시작하였으며 청주시 상당구청, 청주시 경제과에서 근무하다가 2001년 도 소양고사에서 나름 좋은 성적을 거둬 2001년 9월에 도로 전입하게 되었습니다.

도 기업지원과, 자치행정과 행정팀, 노근리지원단에서 근무하다가 6급으로 승진하게 되었고 국제통상과, 정무부지사 비서실, 균형발전과 등에서 많은 경험을 쌓고 사무관에 임관되었습니다. 관광과, 바이오산업과, 바이오정책과

에서 주요팀장 업무를 맡고 2020년 2월에 서기관으로 승진하였습니다. 과장 보임 이후 체육과장, 문예술과장을 거쳐 영동군 부군수에 부임하였는데 부군수로 근무하면서 개인적으로 정말 다양한 업무를 해본 경험이 시군의 종합 행정을 수행하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되었습니다.

공직생활을 하면서 보람 있던 일이나 아쉬웠던 일, 앞으로의 포부가 있으시다면?

청주시 경제과에서 근무하면서 대학 전공을 살려 국제통상업무를 하면서 지역 기업의 수출 업무를 많이 지원했습니다. 특히, 2000년에 전체 수출 관련 기업, 기관 등이 참여했던 제1회 무역상담회의 성공적인 개최는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으며 지금도 도에서 이어받아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3년 행정서비스현장 업무 담당자 시 전국 평가에서 최우수인 대상(대통령 표창)을 수상함으로써 충북도의 행정 서비스를 한 단계 높이는 데도 일조하였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만 3년간 바이오산업육성에 근무하면서 우리 지역의 특화산업인 바이오산업 육성 토대 마련에 일조했습니다. 특히, 2019년 문재인 대통령이 오송을 방문하여 '바이오헬스 국가비전 선포' 때 관련 제반 준비사항을 도맡아 했고 오송 지역이 바이오헬스산업의 중심지임을 대내외에 알리는 데 기여했습니다.

2022년 11월 영동군 부군수로 부임하면서 영동군 지역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남부권 최초의 국제행사인 "2025 영동세계국악엑스포"를 영동에서 유치하였을 때는 개인적으로 조금이나마 일조했다는 생각에 정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공직생활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나 퇴직할 때까지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본부장님의 대학 시절은 어땠나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저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대학 신입생 때는 친구들과 함께 대학의 낭만과 자유를 마음껏 즐겼고(내일이어서 오라는 마음으로) 2학년 때는 군대 갔다 와서 공부할 요량으로 적당히 놀고 시험 때 몰아쳐 공부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군대 다녀온 후 예비역 때는 취업 준비를 위해 열심히 중앙도서관을 다니며 공부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대학 시절 특별한 에피소드나 기억에 남는 일, 존경하는 교수님이 있으면 들려주세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 2학년 때는 전두환 군사독재 시대라 캠퍼스는 늘 어수선했었습니다. 그러다가 '87년 6월 민주화 항쟁이 있었고 굳게 닫혀 있던 정문이 열리면서 많은 재학생들이 스크럼을 짜고 시대로 진출하여 가두 시위를 했습니다. 그날 저도 참여했는데 그 모습을 우연히 보신 어머니가 놀라셔서 그날 저녁 교사였던 아버지에게 조용히, 근심어린 교육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대학 1학년 때 지도교수였던 김형래 교수님을 통해 무역학과 학생으로서 국제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았고 그 이후 늘 국가 간의 국제정세, 상황 등에 대해 폭 넓게 생각하게 되었으며 공직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커다란 도움이 되었습니다.

공직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충고가 있다면요?

최근 들어, 젊은이들에게 공직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최고의 직종으로 각광을 받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민선시대이다 보니 공무원을 대하는 태도가 예전과 같이 않고 공복이라는 자긍심도 많이 약화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9급 공무원이 초임으로 받는 봉급이 최저임금 수령자보다 못하고 퇴직금도 없이 국민연금 수준에 맞춘다 하니 더욱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으로서 국가와 사회와 지역을 위해 일한다는 보람이 있습니다. 사회발전에 나름 기여한다는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앞으로 공무원에 대한 처우도 분명히 좋아질 것입니다.

끝으로 충동문화나 모교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요?

충북대학교는 명실상부 충북의 최고 중심 대학입니다. 제가 학생으로 다닐 때도 지금도 앞으로도 그 점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현재 충북도청 직원의 40% 가까이, 그리고 사무관 이상 직위의 50% 이상이 충북대학교 출신입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공직자 배출의 최고 요람인 충북대와 지역의 각급 기관(충북도청, 청주시청, 충북교육청 등) 등이 함께 협력해 나간다면 지역발전에 커다란 견인 역할을 할 것이 분명합니다. 후배님들은 충북대학교 출신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충동문화나 모교에서도 중간 매개체로서 긴밀한 교류와 협력이 잘 이뤄 질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동민 편집위원>

충북대 장학 할머니 강정 신언임 여사 영결식

충북대학교장으로 진행, 고창섭 총장 영결식서 송고한 마음 기려

충북대(총장 고창섭)에 따르면 충북대 장학 할머니 강정 신언임 여사가 91년의 생을 마무리하고 영면에 들어갔다.

충북대는 2024년 1월 22일(월) 오전 10시부터 지역을 이끌 인재 양성에 힘써 달라며 자신의 전 재산을 기탁한 신언임 여사의 송고한 뜻을 기리고자 빈소를 충북대학교병원장례식장에 마련하고, 충북대학교장으로 장례식과 영결식을 진행했다. 장례위원장인 고창섭 총장을 비롯한 장례위원들과 유족, 장학생, 교직원, 조문객들과 고인을 기리고 생전 고인의 뜻을 되새겼다.

강정 신언임 여사는 '청주의 구두쇠 할머니'로 소문난 정도로 평생 허리를 졸라매고 재산을 모아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힘써 왔다. 지난 1993년 6월 30억 원 상당의 부동산 기탁을 시작으로 2011년 9월 개교 60주년을 기념해 10억 3천여만 원을

쾌적했고, 이후 2018년 12월 자신의 마지막 재산인 북문로 1가 소재 8억 상당의 건물을 기탁하며 "죽어서도 많은 자식이 공부하는 충북대와 함께 하고 싶다"라며 큰 베품의 미덕을 실천했다. 특히, 일제 강점기인 1932년 빈농의 1남 8녀 중 다섯째 딸로 태어나 여자라는 이유와 가난한 집안 형편으로 배우지 못한 학구열과 자식을 두지 못한 아쉬움으로 충북대 학생 모두를 아들, 딸로 여기며 전 재산인 총 51억 3천만 원의 장학기금을 기탁해 사람들의 귀감이 되었다.



〈영결사 중인 고창섭 총장〉

고창섭 총장은 "아낌없는 사랑과 나눔으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가치를 선물해 주신 강정 신언임 여사님을 기리고, 그분의 삶을 회상하며 극락왕생을 기원하기 위해 이자리에 모였다"라며 "100명 이상의 장학생을 자식처럼 아끼고 자신의 꿈을 키울 수 있게 응원해 주신 그 뜻을 마음에 품고 항상 간직할 것"이라며 영결사를 전했다.

또한 장학생을 대표해 이민섭 학생은 "누구보다 나누는 행복을 아시고 그 뜻을 펼치는 데 한 점 망설임이 없었던 여사님의 모습을 오래도록

기억하고 마음에 되새길 것"이라며 "앞으로 평안과 행복을 누리기 바란다"라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충북대는 고인의 이름을 딴 「신언임 장학금」, 「신언임 충효 장학금」, 「신언임 로스쿨장학금」을 설립하여, 연간 10명에게 5천여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이날 영결식에는 장학생 대표로 함영규(행정학과 90학번) 씨와 이민섭 학생(물리학과 19학번)이 참석해 신언임 여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명복을 빌었다.



〈장학생 일동이 추모하는 모습〉



〈장지로 이동하는 모습〉

충북대 선수단,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선전!

5개 종목 출전해 메달 8개 획득

모교 체육교육과 학생들로 구성된 충북대 선수단이 지난 10월 13일(금)부터 10월 19일(목)까지 전라남도 일원에서 개최된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해 값진 성과를 거뒀다.

충북대 선수단은 5개 종목에 출전해 금메달 2개, 은메달 3개, 동메달 3개를 획득했다. 특히, 소프트테니스 단체전은 전국체육대회 8연패의 위업을 달성하며 남자 대학부 최강의 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더불어 개인복식에 참가한 설윤수(3학년), 문정인(2학년) 학생은 은메달을 추가 획득하였다.

레슬링에서도 우수한 성적이 이어졌다. 반민욱(4학년) 학생이 그레코로만형 67kg급에 출전하여 금메달을

차지한 데 이어 자유형 65kg급에서도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또한, 자유형 74kg급에 출전한 박성민(2학년) 학생이 은메달을 차지하였고, 엄성현(2학년) 학생이 그레코로만형 82kg급에서 동메달을 획득하며 대회를 마쳤다.

육상에서는 이기쁨(4학년) 학생이 여자 400mH에서 동메달을 따내며 충북대 선수단은 대회를 마무리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1억 원 지원받아 대운동장 새 단장



〈보수 후 대운동장〉



〈우레탄 트랙 교체〉



〈스탠드, 배수로, 인라인 트랙 보수〉

2024년도 1월 6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우리 학교 대운동장을 정비하는 작업이 진행됐다.

예산은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1억 원을 지원받았다.

먼저 미관상 좋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안전까지 위협했던 인라인 트랙을 도색했다. 대운동장 중심에 있는 스탠드의 철제 난간도 보수했다.

이번 작업의 핵심인 인조잔디 충전재 교체작업에는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됐다. 기존 충전재를 걷어내고 새롭게 교체한 충전재는 'SEBS'다. 이는 열가소성 친환경 고무로 장난감이나 칫솔

등에 사용되는 소재라 안정성과 미관상 모두에서 우수하다.

시설과 토목팀장 김종문 씨는 "이번 작업으로 대운동장이 깔끔해져서 너무 좋지만 아직까지 노후된 시설들이 많은 게 사실이다. 학생들을 위해 이런 체육시설들을 하루빨리 보수해서 학생들이 양질의 학교생활을 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덧붙여 그는 "아무리 보수를 하더라도 이용하는 학생과 시민들의 의식이 중요하다. 공공시설이지만 자신이 사용하는 시설물이니 최소한의 주인의식은 지켜 주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김경열 편집위원>

2023년도 개신대동제 개최

2023년 9월 25~26일 이틀 동안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와 축제준비위원회(이하 축준위)가 주최한 '2023 개신대동제'가 진행됐다.

개신대동제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부스와 정문 옆 잔디밭에서

의 공연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개신문화광장부터 사회과학대 앞 도로까지 이어지는 거리에서는 21개의 학생 부스와 플리마켓, 푸드트럭 등의 부스가 운영됐다.



충북대, 총장 직속 '글로벌대학추진단' 신설 글로벌대학 사업 전담조직 발족으로 사업 추진에 박차

충북대학교(총장 고창섭)가 글로벌 대학 사업 운영 및 성과 창출을 위한 전담조직으로 글로벌대학추진단 신설을 예고했다.

올해 2월 중 정식 출범할 예정인 글로벌대학추진단은 총장 직속기구로 기획처장이 단장을 맡게 되며 통합추진부, 실행계획부, 사업추진부로 구성된다. 특히, 글로벌사업의 주요 과제인 한국교통대와의 통합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양 대학이 공동 조직으로 추진단 내 통합추진위원회 및 통합추진부를 설치하여 통합계획 마련을 위한 양 대학의 소통과 통합 추진 실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통합추진위원회는 양 대학의 교원, 직원, 학생 위원을 중심으로 구성하며 구성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통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통합계획서는 연내 교육부에 제출하여 통합을 통한 특성화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캠퍼스 특성화, 캠퍼스 총장제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며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연구 중심 대학으로 도약할 마스터플랜이 제시될 것이다.

고창섭 총장은 “글로벌대학추진단 신설을 통해 양 대학 간 단계적 통합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대학의 혁신역량을 결집하여 지역 주력 산업을 특성화한 글로벌 연구 중심 대학으로 도약해 지역과 상생발전을 이뤄낼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의: 충북대학교 기획과 ☎043-261-3836)

〈어강석 편집위원〉



제11회 박물관과 함께하는 개신가족 역사기행

충북대학교 박물관이 우리 대학교직원 및 가족, 재학생 70여 명을 대상으로 11월 11일(토) '제11회 개신가족 역사기행'을 진행하였다. 이번 역사기행은 '선사문화의 걸작, 반구대 암각화'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천전리 각석, 울산암각화박물관, 울주 반구대 암각화 등을 방문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외국인 유학생은 “학교 박물관에서 주최하는 역사기행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돼 매우 즐겁다”라며 “이번 기행을 통해 한국의 선사 문화를 알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고 반구대 암각화가 문화유산으로서 가치가 높다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말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학생은 “지난해 박물관에서 개최한 <흑백으로 보는 암각화 특별전>

에서 충북대 선배들이 직접 탁본한 것을 관람한 것이 기억에 남는다”라며 “이번 역사기행을 통해 반구대 암각화를 직접 답사할 수 있어 의미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김범철 박물관장은 “앞으로도 개신가족에게 다양한 역사 문화 체험을 제공하고 역사 및 전통 문화에 관한 관심을 증대하는 일에 더욱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우리 대학 교직원 및 가족, 재학생 등을 위한 문화 체험 활동으로 마련된 개신가족 역사기행은 2014년 1회를 시작으로 2023년 11회에 이르기까지 학교 구성원들이 우리 역사와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를 확대하고 구성원 간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충북대학교-한국교통대학교 '글로벌대학30 사업'



충북대학교(총장 고창섭)-한국교통대학교(총장 윤승조)가 교육부가 추진하는 2023년 '글로벌대학 30 사업'에 본지정 대학으로 최종 선정됐다.

※글로벌대학30사업 : 2026년까지 비수도권 대학 30개 지정, 5년 동안 교당 1천억 원 지원

지난 6월 예비 평가를 거쳐 15개(대학 수 기준 19교)가 지정되었고, 이번 본지정 평가를 통해 충북대-한국교통대가 공동으로 글로벌대학 10개 중 하나로 최종 선정되었다.

충북대학교-한국교통대학교는 ▲충북대학교-한국교통대학교의 통합 ▲학생 중심의 학사구조·제도 혁신 ▲경계를 허무는 융복합 커리큘럼 혁신 ▲무한대 학생 지원 ▲국경을 허무는 글로벌 K-교육 모델 혁신 ▲지산학연 연계 협력 생태계 구축 ▲충북을 아우르는 거점대학 ▲대학 통합을 통한 담대한 변화 등 8개의 추진과제와 32개의 세부과제의 이행을 통해 대학 경쟁력 제고에 노력해 갈 것이다.

〈충북대학교-한국교통대학교 : 통합을 통한 혁신 극대화, 지역과 함께 세계로〉

“대학 통합을 계기로 캠퍼스 별로 지역의 주력 산업과 연계하여 특성화*하고, 대학과 산업체가 협업하여 현장맞춤형 기술 개발 및 인재양성을 추진하는 개방 공유(Open & Shared) 캠퍼스를 구축한다.”

*[청주] 기초 및 원천기술 중심의 연구 중심 대학, [충주] 미래 지향 공학 중심의 글로벌 교육 연구 혁신대학, [증평+오창] BBCM(이차전지·반도체·바이오·모빌리티) 실증 캠퍼스

양 대학의 글로벌대학 지정은 충청북도와 청주시, 충주시, 증평군, 의왕시 등 지자체의 대폭적인 재정 투자와 다양한 지원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지역 산업체와 공유·협업을 강화하는 혁신적인 모티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창섭 충북대학교 총장은 “글로벌대학 지정은 충북대와 한국교통대 전체 구성원 노력의 결실이며, 앞으로 지자체·산업체와 협력하여 교육·연구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혁신성장의 허브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어강석 편집위원〉

'천원 아침밥'과 '이천원 저녁밥'



보직자, 학생 대표가 참석해 재학생 500명에게 무료로 저녁밥을 배식하였다.

'이천원의 저녁밥'은 충북대가 자체 예산으로 저렴하고 건강한 저녁식사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재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대학 생활 지원으로 안정적인 면학 분위기를 만들고자 마련됐다. 당초 학식 비용 4,900원 중 대학이 2,900원을 부담한다. 학생들은 2천 원으로 저녁 식권을 구매하면 된다. 이 '이천원의 저녁밥'은 2023년도 2학기가 끝나는 12월 21일까지 충북대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빛식당에서 운영되었다.

충북대학교(총장 고창섭)는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이어 '이천원의 저녁밥'을 제공하였다. 12월 21일까지 제1학생회관 1층 한빛식당에서 300명에 한해 제공했다.

충북대에 따르면 2023년도 10월 23일 5시부터 고창섭 총장, 대학 본부

충북대는 2023년 9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먼저 시작했다. 충북대 관계자는 “학생들에게 저렴하고 질 좋은 조식과 석식을 제공하겠다”라며 “학교에서 늦은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들이 건강하고 즐겁게 생활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경열 편집위원〉

제29회 충북대학교 총동문 가족 체육대회 성황리에 개최



<개회식>



<한국수자원공사팀 종합우승>

2023년 10월 21일 오전 10시부터 충북대학교 종합운동장에서 제29회 충북대학교 총동문 가족 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소통과 참여로 함께하는 충북대 총동문회! 화이팅!’이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된 이날 대회에는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 중인 16개 기관·단체 동문회에서 800여 명의 동문과 가족들이 참가하여 진행되었다.

윤양택 총동문회장의 대회사에 이어 고창섭 충북대학교 총장, 정우택 국회의원 등의 축사로 이어진 개회식이 진행되었다.

이후 진행된 배구, 축구 페넬티킥, 골프 퍼팅, 농구 슛, 개인기네스 게임, 단체 명랑운동게임, 장애물 릴레이경주 등으로 나누어 열띤 경기를 펼쳤다.

이날 대회에서는 지난 해에 이어 한국수자원공사팀이 종합우승을 차지했으며, 한국농어촌공사팀이 2위, 충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고등학교팀이 3위를 차지했다.

윤양택 총동문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총동문 가족 체육대회는 개인적으로는 동문 간 교류를 통해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는 것이며 조직적으로는 구성원들의 단합을 통해 동문 조직의 힘을 키우고 그 구성원들의 자부심을 높이는 장이라고 생각합니다.”라며, “또한 총동문 가족 체육대회가 지회·지부 간 외형적인 경쟁보다 동문 간 교류를 통해 유대를 강화하고 모교의 발전을 응원하는 단합된 마음으로 승화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라고 밝혔다.



<배구 경기>

재경동문회 2023년 송년회 개최



재경동문회(회장 이재로, 영어교육 74)는 지난 해 12월 18일 오후 7시에 서울 서초동 토담한정식에서 2023년 송년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송년회에는 박동준(영어교육 73) 동문을 비롯한 30여 명의 동문들이 참석하여 한 해를 보내는 소회를 나누고 동문 간의 우애를 다졌다.

이재로 회장은 “2023년 한 해 동문 선후배 간의 유대를 통해 서울지역의 동문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총동문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라고 하며 “2024 갑진년에도 청룡의 기운으로 더욱 승승장구하고 재경동문회가 한 걸음 더 성숙해지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 재직동문회 간담회



총동문회 윤양택 회장은 2023년 9월 11일 저녁 6시30분부터 분평동 모

식당에서 한국농어촌공사 재직동문회(회장 신희섭 본부장)와 만찬 겸 간담회를 가졌다.

한국농어촌공사 재직동문회에서는 신희섭 본부장, 공유석 단장, 박재우 부장, 전승민 부장, 배화진 부장, 황인찬 부장, 김성태 총무 등이 참석하였으며 총동문회에서는 윤양택 회장, 황동민 사무처장이 참석하였다.

NH농협은행 재직동문회 간담회

총동문회 윤양택 회장은 2023년 9월 15일 오후 6시30분부터 분평동 모 식당에서 NH농협은행 재직동문회(회장 엄정식 지부장)를 초대하여 만찬 겸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NH농협은행 재직동문회에서는 엄정식 지부장, 최준영 충북대학교지점장, 현석환 동청주지점장, 박인실 충북본부 홍보실장, 이재근 재직동문회 총무 등이 참석하였으며 총동문회에



서는 윤양택 회장, 황동민 사무처장이 참석하였다.

경찰청 재직동문회 간담회

총동문회 윤양택 회장은 2023년 10월 12일 오후 6시30분부터 율랑동 모 식당에서 경찰청 재직동문회(회장 신희섭 총경)를 초대하여 만찬 겸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경찰청 재직동문회에서는 신희섭 총경, 이형수 총무, 한상욱 경정이 참석하였으며 총동문회에서는 윤양택 회장,



황동민 사무처장이 참석하였다.

총동문체육대회 개최를 위한 대표자 회의



총동문회는 제29회 총동문 가족

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대표자 회의를 2023년 9월 21일 오후 7시부터 봉명동 모 식당에서 가졌다.

대표자 회의는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16개 기관·단체 동문회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윤양택 회장의 인사말과 더불어 대회 참가 및 경기종목 안내, 대진표 추첨순으로 진행되었다.

의대 3회 동문들, 후배들 위한 장학기금 기탁

의과대학 발전과 후학 양성을 위해 써 달라며 의과대학 3회 동문들이 장학금을 기탁했다.

의과대학 3회 동문회와 더월속편한내과 고병성 원장(3회)이 각 1천만 원씩 총 2천만 원의 발전기금을 기탁했다.

이날 행사에는 기탁자인 의과대학 3회 대표로 청주 첼로병원 이정희 원장과 고창섭 총장, 황재훈 대외협력본부장, 김혜영 의과대학장(2회), 전현정 보건진료원장(4회), 이옥준 의과대학 부학장(5회)이 참석했다.

한편, 의과대학은 진리, 정의, 개혁



의 건학 이념으로 미래를 창조하는 의사, 능력을 키워 가는 의사, 생명을 존중하는 의사, 협력을 도모하는 의사로 교육하여 건강한 삶에 헌신하는 의료전문가를 양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총장 초청 간담회



고창섭 총장은 2024년 1월 23일 신년을 맞이하여 총동문회와 교류를 갖기 위해 윤양택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을 초청하여 만찬 및 간담회를 가졌다.

저녁 만찬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고창섭 총장, 박유식 교무처장, 홍장의 학생처장, 이준수 연구처장 등이 모교

를 대표하여 참석하였으며 총동문회에서는 윤양택 회장, 류태기 자문위원장, 정동주 자문위원회 총무, 김용은 감사, 정삼균 감사, 박흥찬 대외협력위원장, 황동민 사무처장이 참석하였다.

고창섭 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학교와 총동문회의 협력적 관계가 학교 발전에 초석이라고 강조하며, 글로컬 30 최종 선정에 있어서 동문들의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윤양택 회장은 답사를 통해 “좀 더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동문들의 의견이 학교 정책에 더 많이 반영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2023년 개신대동제 격려금 전달



총동문회 윤양택 회장은 2023년 9월 25일 오전 11시에 총동문회 회장실에서 9월 25~26일 이틀 동안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와 축제준비위원회가 주최하는 ‘2023 개신대동제’를 축하하기 위해 김종현 비상대책위원장에게 100만 원의 격려금을 전달했다.

재직동문회 2023년 정기총회 개최

충북대학교 재직동문회는 2023년 12월 12일 오후 6시 30분에 경화대반점에서 약 60명의 동문이 참여한 가운데 2023년 충북대학교 재직동문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총회는 박종진(체육교육과 83) 회장의 개회사로 시작하여 4명의 정년퇴임 동문을 대표하여 참석한 최석근(토목 82) 교수에게 송공패를 수여하였다.

이후 2023년 업무 보고, 결산 및 감사 보고, 2024년 예산(안) 심의, 재직동문회 규약 일부 개정(안) 의결, 2024년 임원 선출, 교가 제창,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되었다.

박종진 회장은 개회사에서 충북대



학교가 직면한 문제들에 대하여 재직동문들의 적극적인 도움과 참여를 당부하였다. 아울러 2023년 한 해 동안 재직동문회를 이끌면서 많은 도움을 주셨던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재직동문회 회장으로 홍장의(전산통계학과 84) 동문이 선출되었다.

2024 충북대학교 총동문 신년회 성료



〈신년 교례〉



〈공로패 수여〉

충북대학교 총동문회(회장 윤양택)는 지난 1월 18일(목) 오후 6시30분부터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다목적홀에서 200여 명의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4 충북대학교 총동문 신년회’를 개최하였다.

소프라노 전은정의 공연으로 시작된 신년회는 상호 간 새해 인사와 더불어 동문회 발전에 기여한 분들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공로패는 권용봉(건축 82) 부회장, 박흥찬(수학 83) 대외협력위원장, 김용규(행정 86) 부회장, 이영노(컴공 86) 부회장, 조남훈(산업대학원)부회장, 김현주(대학원) 상임이사, 강희진(기계 87) 깨끗한나라(주) 상무이사, 장기우(교육 90) 회보편집위원, 김경열(국교 92) 회보편집위원 등 9명에게 수여했으며, 최근 경무관으로 승진한 신효섭(행정 88) 동문(충북

경찰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에게 자랑스러운 동문패를 수여했다.

이어서 윤양택 총동문회장의 신년사와 고창섭 총장, 도종환 국회의원, 이장섭 국회의원, 이범석 청주시장 등의 축사, 2023년 사업보고 영상 상영 그리고 만찬으로 이어졌다.

윤양택 총동문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최근 각 기관·단체에서 충북대학교 동문들의 승진과 영전 등이 빈번해졌다. 앞으로도 더 많은 동문들이 국가와 지역사회의 리더로 더욱 승승장구하길 바라며 이를 위해서는 동문 간의 단합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윤 회장은 “지난해 글로컬 대학30에 최종 선정된 모교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총동문회도 모교 발전에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밝혔다.



〈자랑스러운 동문패 수여〉

〈황동민 편집위원〉

최근 근황과 동문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충북대 동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경 동문회장을 맡고 있는 영어교육과 74학번 이재로입니다.

저는 1990년 이래 지금까지 무역업(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1974년 입학했으니까 입학 연도로 벌써 50년이나 되었네요. 1970년대 학창시절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면으로 이렇게 인사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회장님께서 학교 다니실 때 어떤 학생이었던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영어 회화에 많은 관심이 있어서 1977년 군을 제대하고, 1978년 복학해서 교내에 "영어 연구회"라는 서클을 만들어서 활동했던 것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거의 매일 아침 무거운 라디오 녹음기를 메고 다니면서 AFKN(주한미군 뉴스채널) 뉴스를 영어 연구회 회원들과 함께 듣고 토론도 하고, 미 평화 봉사단원을 영어 연구회에 초청해서 영어 회화도 공부하고, Newsweek지나 다이제스트 영어 잡지 등을 회원들과 함께 번역도 했던 것이 멋진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시고 어떤 일을 하셨나요?

저는 1981년 사범대 영어교육과를 졸업하고 1981년에서 1983년까지 2년 동안 충북 보은군에 있었던 속리 중학교(현재는 폐교)에서 영어 교사로 재직했고, 1983년~1985년 2년간 서울에 있는 선박회사에서 2년 근무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무역회사에 다니다가 1990년 초에 저의 현재 무역회사를 설립하고 자동차 부품 및 도자기 관련 제품, 기계 및 자재 등을 수출하는 무역업을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충북대학교 재경(在京) 동문회

이재로 (영어교육74) 회장

재경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회장을 맡고 계신데, 재경 동문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2018년 이래 지금까지 재경동문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처음 회장을 맡은 2018년에는 어느 정도 재경 동문회가 활성화가 되어 있었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많이 침체 되었

다가 이제 조금씩 동문들이 더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재경 동문회는 123 ROTC 동문 모임과 재경 동문 산악회(매월 2번째 토요일)와 유기적으로 서로 협력하면서 좀 더 많은 동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북대 총동문회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도 재경 동문들과 함께 적극 참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4년 회장님 개인적인 소망이 있으시다면 무엇인가요?

건강을 유지하면서 현재 하고 있는 무역업을 통해 조금이라도 타인에게 도움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학교 후배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제가 좋아하는 영어 속담 중에 "Where there is a will, there is a way"라는 말이 있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는 말이지요.

어떠한 경우여라도 뜻을 굳게 갖고 정진을 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배움의 자세를 갖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거 같습니다만 동문들 간에 서로 협조하여 끌어 주고 밀어주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후배 여러분 모두 2024년 갑진년 한해에도 건강하시고 뜻하는 모든 일 잘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총동문회나 모교에 바라는 것이 있으시다면?

누구나 태어나고 자란 고향이 있듯이 모교는 이미 졸업한 우리의 젊은 학창 시절 마음의 고향입니다. 고향은 언제나 그림고 가 보고 싶은 곳입니다.

항상 모교가 발전하고 졸업한 동문들이 모두 잘 되기를 우리 모두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각자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모교 발전과 총 동문회 발전을 위해서 서로 소통하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강석 편집위원)

사학과 개설 40주년 기념행사

인문대학 사학과가 개설 40주년을 맞아 동문들과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10월 28일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다목적홀에서 열린 '충북대학교 사학과 40주년 기념식'에는 고창섭 충북대 총장, 이석린 충북대 사학과 명예교수, 임형수 충북대 사학과 학과장, 최영준 사학과 총동문회장 등 재학생과 졸업생, 교수진을 포함한 15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축사를 맡은 고창섭 충북대 총장은 "지난 40년간 사학과 발전을 위해 힘써온 교수들과 총동문회 회원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라며 "재학생들도 사회에 진출해 제 몫을 다할 수 있도록 학교가 최선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83학번부터 23학번까지 한데 모인 이번 행사는 레크리에이션, 기념식, 만찬회 순으로 진행됐다.

최영준 사학과 동문회장은 "매년 꾸준히 후배들을 위해 후원금을 희사하는 동문들에게 감사하다"라며 "미래 50년을 기약하며 선후배가 모두 맡은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황동민 편집위원>



제33회 임원명단

회장 윤양택 컴공82 감사 김용은 과학교육72 정삼균 경제95 사무처장 황동민 안전87

자문위원

Table with 7 columns of names and department numbers under the '자문위원' category.

부회장

Table with 7 columns of names and department numbers under the '부회장' category.

상임이사

Table with 7 columns of names and department numbers under the '상임이사' category.

대외협력위원

Table with 4 columns of names and department numbers under the '대외협력위원' category.

임원회비 · 동문회비 · 평생회비 납부자 명단

- List of members and their contribution amounts for various categories: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평생회비, and CMS 납부 동문.

동문회비 납부안내

동문회비! 모교 사랑의 열매이며 동문회를 키우는 뿌리입니다.

은행에 가실 때 잊지 말고 동문회비(연회비, 평생회비, 임원회비, 장학기금)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통장입금 입금 시 성명·학과·입학연도 입력 요망!! 연회비 60,000원 · 평생회비 300,000원 이상

농협 301-0229-7165-71(예금주 :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문의 043-261-3121

충북도의회 박재주 의원 (법무대학원)

충북대 동문들에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박재주입니다. 저는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충북도교육청 예산과 학생들을 위한 정책 수립 등을 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육에 필요한 조례의 일부나 전부를 개정해 학생복지와 학생들의 건강, 학업, 성취도 등 다양한 부분을 알게 돼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제 역할을 통해 학생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충북대 시절 특별한 에피소드나 기억에 남는 일, 교수님이 있다면 들려주세요.

저는 현재 법무대학원을 4학기째 다니고 있습니다. 의원 생활과 학업을 병행하다 보니 시간 투자가 많이 필요하네 그렇게 하는 게 정말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늦게 시작한 학업이니 만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원우회장을 맡고 있는데, 원우들과 대화하면서 동문회와 교수님들과의 소통, 요즘 대학생들의 학교생활을 간접적으로 들을 수 있어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모교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요.

충북대가 이번에 글로벌 대학으로 선정되는 등 통폐합 과정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많은 선배들이 이끌고, 대한민국 더 나아가 전 세계가 알아주는 대학으로 발전하도록 더욱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학생들도 더욱 힘을 내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북대 동문과 후배들에게 한 말씀 한다면요.

학생들의 정열이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는 오지 않을 우리의 대학 시절을 만끽하고 즐기는 다양한 문화와 오락 등 전문성 있는 과정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자기 개발을 통한 미래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는 젊음이 살아 있는 캠퍼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의원 생활을 하면서 보람 있던 일이나 아쉬웠던 일이 있다면요?

지금도 의원직을 알아가는 상황이라 특별한 것은 없지만, 저희들이 예산의 의결권과 조례의 일부 및 전부를 개정할 수 있기에 학생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스포츠를 자유롭게 하는 역할을 통해 자기 발전을 하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국체전에서 우승도 하고, 학교에서는 학생 건강의 중요성을 알게 돼 필요한 부분을 만들고 있어 만족스럽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학창 시절 운동선수 생활을 해서 그런지 운동과 학교 학생들의 체력, 기초학력, 독서 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북도의회 이옥규 의원 (생활과학대학원)

충북대 동문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문 여러분, 충북대 생활과학대학원 졸업생 이옥규입니다. 저는 제11대, 제12대 충북도의원으로 활동 중입니다. 현재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속으로 지역주민들을 대변하고, 주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충북도의원으로 활동 중인데 어떤 일을 하는지 알려주시지요?

도민의 대변인으로 충북 도정을 위한 정책 수립, 예산 심의, 도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등 도민을 위해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속으로 충북의 행정에 대한 정책 제안과 지역의 문화 관광개발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역활성화 방안을 위한 각종 조례 제정, 사업 타당성을 판단해 예산을 삭감하는 등 도민을 대신한 도정 조정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도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늘 소통하고, 다양한 현안 이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계기로 정치에 뛰어들었고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셨는지요?

저는 청주에서 30년 가까이 자영업에 종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늘 체감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상인들의 실정을 몰라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것을 오랫동안 봐왔습니다. 그때부터 누군가 상인들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치에 대해 잘 모르는 제가 정치를 한다는 게 옳은 것인지 오랜 기간 고민했고, 저를 믿고 적극 정치를 권했던 분들에 힘입어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의원 생활을 하면서 보람 있던 일이나 아쉬웠던 일, 앞으로의 포부가 있으시다면 말씀해주세요.

먼저 충북도 청원경찰의 처우 개선을 위해 「충청북도 청원경찰 처우 개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청원경찰들을 위한 교육과 포상, 퇴직 전 교육 등 복리증진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현장 업무의 특성을 배려해 저녁 식사시간의 근무 시간 인정 등 보다 많은 복지를 위한 정책을 제시하고 실행했습니다.

또 충북도 소속 운동경기부 6개 팀이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을 알고 리모델링을 집행부에 요구해 2개 숙소에 대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앞으로 의정활동 목표는, 지역의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도시재생, 재건축, 재개발 등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과 아동보육 및 학교교육을 지원하고, 문화 체육 여가 공간을 확충해 충북을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대학시절 특별한 에피소드나 기억에 남는 일, 교수님이 있으시다면 들려주세요.

대학원 박사과정 시절 여러 가지 활동을 병행하며 논문을 쓰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몇 번이나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았는데 그때마다 지도교수님(권수애 교수)께서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보자.”라며 많은 조언과 다독임으로 저를 잡아주셨습니다. 그런 교수님의 열정 덕분에 저도 최선을 다해 학위를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모교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요?

지나해 11월 충북대학교가 글로벌 대학으로 지정됐습니다. 이에 우리 충북대가 지역 거점국립대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지역사회와 협력을 강화해 동반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교육과 연구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들을 찾아 충북 발전에 훌륭한 견인차 역할을 하기를 바랍니다.

충북대 동문과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항상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도전의식을 갖고 꾸준한 노력으로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길 바랍니다.

충북대 동문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지혜와 인내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길 기원합니다.

〈장기우 편집위원〉

증평군의회 이금선 의원 (경영대학원)

충북대 동문들에게 간단히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충북대학교 경영대학원 29기 이금선입니다. 기초의원으로서 당선될 수 있도록 성원해주신 모교 동문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성원을 잊지 않고 모교 발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증평군의원으로 활동하고 계신데 증평군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태어난 증평군은 '대한민국의 중심인 충북', 그중에서도 중심인 지역입니다. 두타산 아래로 보이는 마을을 바라보면 밥 짓는 냄새가 떠오르고, 도안면의 너른 논밭을 떠올리면 개구리우는 소리가 귓가에 선연하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36번 국도를 달리다가 만나는 증평군의 초입은 잘 관리된 미루나무 숲과 늘어진 대단지의 아파트가 제법 도시적이어서 실제로 살아보고 싶게 만드는 지역입니다.

들과 함께 진정한 배움의 즐거움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 특별한 기억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로 경영대학 원우회장으로서 총장님을 예방했을 때입니다. 두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한 가지는 땀 흘리는 개미로 학문에 정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습득한 지식은 다른 사람이 밝혀 놓은 것을 잠시 빌린 것뿐이고 끊임없는 익힘과 창의성을 통해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좋은 습관을 만들라고 하신 점이었습니다. 본성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지지만 후천적 습관의 차이가 사람을 만들기 때문에 좋은 습관을 통해 성공을 만들어 가라고 하셨습니다.

면적도 작고 인구밀도도 높아 자칫 정체돼 보일 수 있는 이 요소가 오히려 증평군의 무궁무진한 잠재력이나 가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할 증평군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선거운동을 하면서 학교를 다녔던 일입니다. 지방선거가 있던 학기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선거운동을 하고 저녁에 수업을 들어가곤 했는데 별에 타 까매진 얼굴로 강의실에 앉아 있으면 피곤이 몰려오곤 했습니다.

군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이론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풍수해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방하기 위한 '증평군 침수방지 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스토킹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증평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세 번째로 동기들과 자주 교류를 하고 싶어 독서클럽을 만든 것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증평군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전 국가적인 정책사업, 그안에서 증평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계속해서 모색하고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종 정책 사업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설득을 통해 합의를 잘 이끌어내는 데에 앞장서겠습니다.

모교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충북대학교는 지난해 글로벌 대학 30에 선정이 됐습니다. 한국 교통대와의 통합이 성공적으로 안착해 충북을 아우르는 거점 대학을 넘어 국제사회에서도 경쟁력 있는 대한민국의 국립대학으로 힘차게 도약하기를 기원합니다.

대학 시절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대학에서 멋진 교수님, 선배님들과 동기를 만날 수 있었기에 제게 더욱 의미 있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MBA를 통해 만난 동문들은 학문에 대한 애정과 인적 네트워크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고 그를 통해 좋은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한, 교수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 격려가 있었기에 동문

충북대학교 동문과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십시오.

최근 각 기관 및 단체에서 승진과 영전을 하는 선배님들의 활약을 보면서 동문으로서 매우 자랑스러웠습니다. 저 또한 지역사회를 위해 이바지하는 모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문들께서 어디에 계시든지 증평에서 늘 응원하겠습니다.

청주시의회 박완희 의원 (정보통신 92)

충북대 동문들에게 소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정보통신공학과 92학번 박완희입니다.



청주시의회 재선 시의원입니다. 그리고 환경위원회에서 상임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기초의회의원협의회 대표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충북대학교 총동문회에서는 부회장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의원으로 활동 중인데 어떤 일을 하시지 알려 주시지요?

청주시의원은 청주시의 조례를 만듭니다. 제가 만든 조례는 도로변에 방음벽이 설치된 곳이 많은데 방음벽에 조류 충돌 방지 스티커를 붙이면 새들이 충돌사고로 죽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조례가 청주시 야생 조류 충돌 저감 조례입니다.

이런 문제를 시의회에서 시정질문과 5분 발언을 통해 공론화하였고, 지역주민들, 환경단체들과 함께 환경부 주민 건강조사를 이끌어 내게 되었습니다. 소각장 인근 지역에 대한 환경부 주민 건강조사는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청주시 예산을 심의 의결해야 집행부인 청주시가 예산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는 매년 11월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서 사업 집행 과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도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특별 사안에 대해 행정사무 조사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일례로 청주시 미세먼지가 전국적으로 심각 한데 그 이유를 찾는 행정사무 조사를 진행한 적도 있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두꺼비생태공원이 환경단체 민간 위탁에서 청주시 직영으로 전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헌신적으로 일해 오던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 마을공동체의 기반이 사라지게 되었죠. 조속히 원상회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 각종 민원처리도 시의원들의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앞으로의 포부는 청주시를 시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인권도시, 교육문화도시, 안전도시, 탄소중립도시, 공동체도시로 만들고 싶습니다.

어떤 계기로 정치에 입문하였으며 시의원이 되셨는지?

대학을 졸업하고 2000년부터 청주의 환경단체에서 일을 했습니다. 10여년의 활동을 통해 산남두꺼비생태마을 공동체가 전국적 모델로 자리를 잡게 되었고, 이런 사례를 청주 곳곳으로 전파하면 좋겠다는 마음에 제도와 정책을 만들 수 있는 시의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2018년 처음 출마하여 당선이 되었고, 2022년 재선이 되어 현재 6년차 시의원으로 활동 중입니다.

대학 시절 의미 있는 추억이나 학교 생활 중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시다면?

저는 1995년도에 총학생회장을 역임했습니다. 당시에는 '광주 5.18 학살자 전두환, 노태우 구속처벌!'을 요구하던 시기였습니다. 또한 학내에는 교수임용 문제가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총학생회는 확대운영위원회, 전체 학생대표자회의를 거쳐 전체 학생총회를 성사시켰습니다. 몇 년 만에 수천 명이 모인 기록적인 사건이었지요.

의원 생활을 하면서 보람 있던 일이나 아쉬웠던 일, 앞으로의 포부가 있으시다면?

청주시에서 전국의 산업폐기물 18%가 소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은 깜짝 놀라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청주시의 대기질이 나빠질 수밖에 없었고, 특히 북이면 지역은 암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충북대 동문과 현재 후배 대학생들에게 해 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충북대학교가 거점 국립대학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글로벌대학으로 선정되면서 대학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대학 구성원들 간에 서로 존중하며, 진솔한 소통과정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고 하나된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자체와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청주시와의 협력이 필요하다면 충북대 출신의 청주시의원들이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 편집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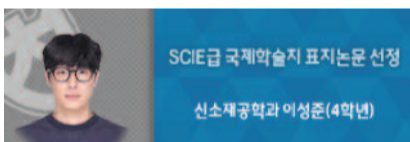
2023 국립대학육성사업 인센티브 평가 A등급 선정

우리 대학이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국립대학육성사업 인센티브 평가에서 'A등급'을 받는 쾌거를 거뒀다. 사회 변화에 맞춰 혁신하고 학생 교육을 충실히 지원했다는 평가다.

우리 대학은 내·외부 환경 및 교육 혁신, 성과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자유로운 선택과 진취적 도전이 보장되는 경계 없는 대학, 한계 없는 학생(Boundless University for Limitless Student)'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경계 없는' 창의 융합교육모델을 설정했다.

우리 대학은 학생교육단계별 '학생 모집-재학 초기-재학 중' 혁신계획의 적극성, 창의성, 다양성 및 실행가능성에 대해 핵심 교육혁신 과제의 체계화된 분류 및 과제 간 연결을 통한 전략성 부여 등 교육혁신 전략성 강도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평가를 통해 우리 대학에 대한 사회적 요구·책무와 관련된 중장기 발전계획의 과제들을 중심으로 대학의 예산을 투자함으로써 지역 거점 국립 대학으로서 공적 역할을 강화한다.



신소재공학과 이성준 학생, SCIE급 국제학술지 표지논문 선정

신소재공학과 이성준 학생(4학년, 지도교수 박유세)이 미국 화학회(American Chemical Society)가 발간하는 국제 학술지 'ACS Sustainable Chemistry & Engineering(IF=8.4)'에 제1저자로 논문을 게재했다. 학부생이 주저자로 SCIE급 국제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번 연구는 'Highly Active Cobalt - Copper - Selenide Electrocatalysts for Solar-Driven Oxygen Evolution Reaction: An Electrochemical Activation Energy Aspect'라는 제목으로 게재됐으며, 그린 수소 생산 기술로 주목 받고 있는 알칼라인 수전해 기술의 산소 발생 반응 전극 개발에 관한 것이다. 이 논문은 연구 결과의 중요성을 인정받아 해당 저널의 표지 논문으로도 선정됐다.

이성준 학생은 저가의 구리-코발트-셀레나이드 촉매를 다공성 전극 기관에 직접 성장시킨 촉매 일체형 전극을 개발했다. 제작된 전극은 전기화학 활성화 과정을 통해 표면 재배열되어 산소 발생 반응에 우수한 활성을 가지는 구리-코발트-옥시수산화물을 형성

했고, 고가의 귀금속 기반의 전극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본 연구는 전극 성능 향상의 이유를 기존에 시도되지 않았던 전기화학 활성화 장벽의 관점에서 설명하여 기존의 연구들과 차별성을 가진다. 또한, 이성준 학생은 개발한 촉매 일체형 전극이 적용된 알칼라인 수전해 셀과 실리콘 태양전지와와의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여 탄소 배출 없는 진정한 의미의 그린 수소를 고효율(태양광-수소 변환 효율 : 13%)로 생산하는데 성공했다.



행정학과 학생들,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 아이디어 공모전 대상 수상

행정학과 김소정, 연민주, 손은지 학생팀(이상 4학년)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주최한 '중증장애인 고용확대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았다. 학생들은 지난 12월 19일(화)에 열린 시상식에서 상장과 부상으로 상금 300만 원도 함께 수상했다.

행정학과 팀은 'MIND TO MIND, 따뜻한 마음을 전해요'라는 제목의 아이디어를 내서 상을 받았다. 이 아이디어는 근로능력이 있는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신체적 결함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비대면 민원 응대 업무를 제안함과 동시에 노인의 디지털 소외를 해소할 수 있는 중증장애인 일자리 아이디어를 중점적으로 제안했다.



의학과 ISLAM JAISAN 씨, 2023 대한신경외과학회 기초과학연구회 우수연구상 수상

의학과 ISLAM JAISAN(박사수료, 지도교수 박영석) 씨가 지난 12월 16일(토) 성남시 차바이오텍에서 개최된 '2023 제3회 대한신경외과학회 기초과학연구회 학술대회'에서 우수연구상을 수상했다.

ISLAM JAISAN 씨는 "만성 신경병증성 통증을 가진 쥐 모델에서 혈소판이 풍부한 혈장 주입이 신경병증성 통증을 개선하는가?(Does intrathecal platelet-rich plasma injection improve neuropathic pain in a chronic compression of the dorsal root ganglion rat model?)"를 발표해 상을 받았다. 이 연구는 '만성 신경병증성 통증(Chronic neuropathic pain, CNP)과 관련된 질환인 만성 압박성 등 뿌리신경절(Chronic compressed dorsal root ganglion, CCD)을 가진 쥐 모델에서 경막 내 혈소판 풍부 혈장(Intrathecal platelet-rich plasma, PRP)

투여의 치료 효과'에 대한 발표다. 이 연구에서 PRP 치료를 받은 CCD 동물은 생체 내 단일 단위 전기 생리학에 의해 기록된 바와 같이 통증 관련 행동 반응이 개선되고 복부 후측방(Ventral posterolateral, VPL) 시상에서 활동이 감소했다. 또한, 면역형광 염색은 척추 등뼈에서 통각 매개체 성장세포 활동의 변화를 확인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PRP가 말초 통증 전달에서 강화된 성장세포 활동을 억제함으로써 만성 허리 신경병증성 통증에 대한 유망한 치료 접근법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이지바이오 황일환 대표, 축산학도들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황일환 (주)이지바이오 대표가 12월 14일(목) 오전 10시 30분에 충북의 축산인재 양성을 위해 써 달라며 장학기금 1천만 원을 기탁했다.

이날 기탁식에는 조석현 (주)이지바이오 이사가 대리 참석해 기탁의 뜻을 전했으며, 고창섭 총장, 황재훈 대외협력본부장, 조진호 축산학과 교수가 참석했다. 황일환 (주)이지바이오 대표는 "우수한 지역의 인재 양성을 위하여 마음을 담아 장학금을 전달한다"라며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미래를 이끄는 축산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라고 기탁의 뜻을 밝혔다.



농업경제학과 학생들, '대국민 쌀·밀·콩 소비 아이디어 공모전' 대상 수상

농업경제학과 신민규(2학년), 한국인(4학년) 학생이 지난 11월 29일(수)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한 '대국민 쌀·밀·콩 소비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과 부상으로 300만 원을 받았다.

신민규, 한국인 학생은 '국내 사찰 음식 브랜드화로 밀-콩 소비 촉진 아이디어'를 주제로, 국내산 밀-콩 소비 촉진 뿐 아니라 관람료 폐지에 따른 사찰과 정부의 갈등을 봉합할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해당 아이디어에 따르면, 사찰은 비건 마케팅에 유리한 사찰 명칭의 사용권을 민간사업자에 제공하고 로열티를 받게 되며, 정부는 사찰 명칭을 브랜드로 활용할 민간사업자가 국산 밀-콩을 사용하도록 인센티브를 주고 지역 농가를 알선하게 된다. 이에 지역 농가는

친환경, Non GMO같이 민간사업자가 원하는 품질 수준에 맞는 원료를 공급하고, 고정적인 수입원을 얻을 수 있도록 계약재배로 국산 밀-콩을 공급하게 된다. 이 아이디어는 정부, 민간업체, 지역 농가, 사찰이라는 4자 협력의 선 사례로서 새로운 농업 협력 모델을 제시하는데, 차별화된 브랜드를 개발하여 국산 밀과 콩의 소비를 증진할 뿐만 아니라 관람료 폐지에 따른 사찰과 정부의 갈등을 봉합하고 불교 문화 진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바이오미래융합기술경영학과 학생팀, '비즈니스모델 경진대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수상

바이오미래융합기술경영학과 석·박사과정생들로 구성된 'Team UNBC' 팀이 지난 11월 29일(수)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한 '2023 대한민국 기술사업화대전'의 '비즈니스 모델(BM) 경진대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을 수상했다.

바이오미래융합기술경영학과 김인형(박사 2년), 김예은(석사 2년), 이영훈(석사 1년), 이재숙(석사졸업), 이정순(박사 1년), 임정현(석사 2년), 정현진(석사 2년), 함지호(석박사통합 2년)로 구성된 Team UNBC 팀이 '생활소음 저감장치 QuietQube'라는 제목으로 발표해 대학원생 공공기술 부문에서 상을 받았다. 이 기술은 소음의 정도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시대에 특히 생활소음 해결이 어려운 Unmet 니즈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AI SW 기술과 HW를 활용하는 QuietQube(QQ) 비즈니스 모델(BM)을 제시하며, NTB 등록 기술인 인공지능 신경망을 이용한 고효상도 음원지도 취득 및 분석 방법과 시스템을 활용하여 제안한 것이다.



바이오시스템공학과, 제4회 농업용 로봇경진대회 대상 수상

바이오시스템공학과 학생들이 지난 11월 3일(금) 여수 히든베이 호텔에서 진행된 '제4회 농업용 로봇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해 시상금 300만 원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 받았다.

바이오시스템공학과 학생들은 '얼굴 같은 내 사과(팀장 이정재, 곽안나, 김원택, 김하나, 이지우(이상 4학년), 임완태(3학년), 지도교수 노현권)'라는 팀으로 참가했으며, 트랜스봇을 기반으로 2대의 Depth Camera와 Jetson Orin Nano

를 활용한 이미지 인식 및 YOLO v5 기반 딥러닝 연산 과정을 통해 임무를 원활히 수행해 대상을 받았다.



화학공학과 학생들, 제12회 전국 화학공학 공정설계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화학공학과 4학년으로 구성된 '오성과 하은음(배성윤, 유은욱, 오민경, 정하권, 지도교수 문종호)' 팀이 '제12회 전국 화학공학 공정설계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인 LG화학상과 상금 3백만 원을 받았다.

오성과 하은음 팀은 그린수소와 블루수소 생산공정을 공정 모사 프로그램인 AVEVA Process Simulation(APS)을 활용해 모사했으며, 매틀랩(MATLAB)과 연동하여 각 공정의 경제성 및 환경성을 비교 분석했다. 특히, 기존의 수소 생산 공정에 탄소세, 배출권거래제, 신재생 에너지 도입 등을 적용해 2050년까지의 경제성과 환경성을 모형을 통해 예측한 것이 좋은 점수를 받았다. 이번 대회는 1차심사와 2차심사를 거쳐 평가를 받았으며, 시상식은 지난 10월 26일(목)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국화학공학회 2023년도 가을총회 및 국제학술대회'에서 진행됐다.



Phoenix 팀, 서울 버추얼 자율주행 챌린지 최우수상 수상

우리 대학 학생들이 지난 10월 30일(월)에 진행된 '제1회 서울 버추얼(가상 환경) 자율주행 챌린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기계공학부 학생들로 구성된 Phoenix(피닉스, 김해준, 육진수, 길기윤 등 5명) 팀과 스마트카 협동과정 Clothoid(클로소이드, 반영준, 최연호 등 5명) 팀이 온라인 가상현실에서 치열한 자율차 레이싱 경쟁을 하는 이번 챌린지에서 상을 받았다.

대회 결과 Phoenix 팀이 1등을 해 최우수상을 받아 상금 500만 원을 받았으며, Clothoid 팀은 본선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우수 알고리즘상을 수상해 우리 대학의 위상을 높였다. 이번 챌린지 경기 방식은 가상현실세계로 구현된 '상암 자율차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동시에 출발시켜 최단경로 주행, 차로 변경, 교통신호 준수, 돌발상황 및 불법주정차 회피, 고속주행, 기상상황 대처 등 주어진 임무(미션)를 법규 위반 없이 수행하면서 목적지까지 빠르게 도착하는 순서대로 순위를 결정했다.

이번 챌린지는 자율주행 분야의 기술 기반을 확대하고 인재 육성 및 학생들에게 자율주행 분야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결승에 진출한 모든 입상자에게는 네이버 랩스 채용시 서류 전형 통과 등 특전이 제공된다.



앤시스코리아, 4억 7천백 만원 상당 캠퍼스솔루션 소프트웨어 기탁

컴퓨터 프로그래밍 기업 앤시스코리아 문석환 대표가 11월 1일(월) 4억 7천1백만 원 상당의 캠퍼스 솔루션 소프트웨어를 기탁했다.

이날 기탁 행사에는 기탁자인 앤시스코리아 문석환 대표와 이용희 이사, 충북대 고창섭 총장, 사동민 대학원장, 황재훈 대외협력본부장이 참석했다.

'앤시스 다중 물리 캠퍼스 솔루션' 소프트웨어는 다양한 공학계열 학과에서 수업과 연구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로 국내외 대학에서 학생들의 엔지니어링 실무 능력 배양을 위해 쓰이고 있다.

문석환 대표는 "기탁한 공학용 소프트웨어를 통해 공학은 물론 새로운 혁신 분야의 연구에도 활용되길 바란다"라며 기탁의 뜻을 밝혔다.



지역건설공학과 CIL 팀, 제2회 농공 학생창의 대회 및 종합설계 경진대회 대상 수상

지역건설공학과 CIL 팀(안치용, 김준영, 윤세진, 김지윤, 장영훈, 김은아, 지도교수 송철민)이 지난 10월 5일(목) 제2회 농공 학생창의 대회 및 종합설계 경진대회에 참가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대상)을 수상했다.

CIL 팀은 이번 대회에서 "효율적 물 관리를 위한 IoT 기반 물꼬 개발"이라는 주제로 가뭄 대응 농업용수 관리 및 농업인력 감소 대응을 목적으로 한 관개 용수로 물 공급 제어 장치를 개발해 상을 받았다. CIL 팀의 기술 개발 결과는 농업기반시설의 첨단화와 미래 농업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써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NH 농협은행 충북본부, 발전기금 기탁

NH농협은행 충북본부(본부장 황종연)

가 9월 18일(월) 학교 발전을 위한 발전기금으로 1억 3천만 원을 기탁했다.

이날 기탁식은 고창섭 총장과 김양훈 산학협력단장, 황재훈 대외협력본부장을 비롯한 대학 관계자들과 NH농협은행 충북본부의 황종연 본부장, 최영준 충북대학교지점장, 김영준 충북농협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황종연 충북본부장은 "우리 지역 뿐만 아니라 우수한 국가 인재 양성을 위해 힘쓰고 있는 학교와 학생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거점국립대학인 충북대학교와 협력적 동반자로 대학의 발전을 위해 각종 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중부출판인쇄사 장윤식 대표, 후배들을 위한 마음 담아 장학금 기탁

청주 중부출판인쇄사 장윤식 대표가 9월 13일(수) 농업생명환경대학 식품생명공학과 학생들의 장학기금으로 사용해 달라며 1천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탁 행사에는 기탁자인 장윤식 중부출판인쇄사 대표와 대학 측의 고창섭 총장, 장금일 식품생명공학과장, 유근혁 대외협력부장이 참석했다. 중부출판인쇄사 장윤식 대표는 "식품공학과 졸업생으로 후배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한다"라며 기탁의 뜻을 밝혔다.



충북대 컨소시엄, 2023년 학·연 협력 플랫폼 구축사업 선정

우리 대학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에서 지원하는 2023년 학·연 협력 플랫폼 구축사업(충청권역, 차세대 전지소재 분야)에 신규 컨소시엄(주관기관: 충북대학교, 공동기관: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이차전지 산업을 선도할 전문인력양성, 신기술 개발 및 기술사업화에 앞장서게 된다.

충북대 컨소시엄은 '고도분석기술 기반 차세대 이차전지 소재 플랫폼' 구축을 바탕으로 지자체 지원 및 대학과 정부출연연구원과의 협력을 통해 차세대 이차전지 소재 개발을 위한 학·연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여 충청권역의 이차전지 산업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학·연 플랫폼 본사업 선정으로 2023년 8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국비

112.5억 원과 지자체(충청북도, 청주시), 기관 대응자금을 포함해 총 124억 원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융합강좌에서 나온 학생 아이디어 2건, 특허 출원 및 기술이전 쾌거

의과대학 교수진이 지난 2017년부터 운영 중인 3개의 융합강좌에서 나온 학생들의 아이디어 2건이 특허 출원 및 기술이전을 완료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 2021년 3월 등록된 '전기장을 이용한 미세먼지 제거 창호 환기장치' 아이디어 특허와 2022년 3월에 등록된 '히팅 가능한 기능성 텀블러' 아이디어 특허가 기업으로 기술이전됐다.

'전기장을 이용한 미세먼지 제거 창호 환기장치'는 전기장을 이용한 미세먼지의 능동적 제거 기술을 탑재한 창호를 개발한 기술로, 환경생명화학과 임도연, 신승현, 컴퓨터공학과 심수연, 중어중문학과 신소연, 농업경제학과 윤상현, 신소재공학과 이주나, 고도은, 지역건설공학과 조민수, 경영학부 정의동 학생이 참여했다.

'히팅 가능한 기능성 텀블러'는 심리학 김령희 학생이 제1발명자로 참여한 것으로,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텀블러에 일정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항온 시스템을 탑재한 기술이다.



건축공학과 학생들, 2023건축 친환경설비 기술공모전 최우수상 수상

건축공학과 3학년 학생들(지도교수 건축공학과 서동현, 임정아)이 지난 11월 10일(금) 부산대에서 열린 '2023년 건축 친환경설비기술공모전'에서 다수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이번 공모전은 전국의 관련 학과에서 약 70편의 작품을 출품해 1, 2차 예비심사를 거친 후 선발된 최종 8팀이 발표평가로 현장에서 최종 등수가 결정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충북대 학생팀이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최우수상을 받은 전경민, 신민규, 정지훈 학생팀은 '중복도 건물의 환기 성능 개선 및 제연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오래된 건물의 전형적인 유형 중 하나인 중복도 건물에서의 환기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솔라칩티(태양굴뚝) 원리를 적용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이론적 계산, CFD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제안한 아이디어의 타당성을 제시해 수상하게 됐다. <박준영 편집위원>



국립문화재연구원 / 학예연구관
오준영 박사 (고고미술사학과 91)



한국천문연구원 고천문연구센터 / 책임연구원
김상혁 박사 (천문우주학과 91)

충북대 동문들에게 간단히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고고미술사학과 91학번 오준영 인사드립니다. 저는 문화재청 소속 국립문화재연구원의 디지털문화재연구정보팀 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국립문화재연구원에서 근무 중이신데, 지금 맡고 계신 일은 어떤 것이지요.

저는 최근 새로 설립한 디지털문화재연구정보팀의 초대 부서장을 맡아 문화재 연구 정보의 아카이빙과 서비스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정보 폭발의 시대에 국립문화재연구원은 무수히 생산되는 문화재 연구 정보들을 잘 모으고 활용하기 위한 일들을 기획하고 진행할 별도의 전담 부서가 필요했고, 거기서 아날로그 자료를 디지털로 변환하는 일, 디지털 자료를 잘 모으고 웹상에서 서비스하는 일, 정보의 2~3차 가공으로 연구정보의 수준을 높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재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서비스하기 위한 일들을 고도화할 예정입니다.

국립문화재연구원에서 근무하게 된 계기와 그동안의 주요 이력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5년 가까운 비정규직 연구원 생활, 여러 번의 낙방을 거친 후 2002년에 문화재청 학예연구사가 되었습니다.

발굴행정, 미술문화재 조사연구, 연구기획, 국립중앙박물관 과전 등 여러 자리를 옮기며 문화재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2019년에는 새로 설립된 국립중앙문화재연구소의 초대 소장을 맡았고, 2022년에는 연구원의 기획 업무를 총괄하는 연구기획과장을, 작년부터는 새로 설립된 디지털문화재연구정보팀을 맡아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문화재의 본질적 의미, 사회적 영향과 관계, 관련된 인식의 역사와 같은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그 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국립문화재연구원에서 근무하면서 이론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재를 찾으려고 깊은 산골들을 누볐고, 독일까지도 가 봤습니다. 독일 라이프치히에서는 조선의 백과사전에 나올 정도로 흔했지만, 우리나라에는 실체가 남아 있지 않았던 인광노라는 일종의 성냥을 발견했던 일이 기억에 납니다. 국보급인 고려 수월관음도를 일본에서 환수하는 일에 참여했던 것도 보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보람 있었던 일은 직접 발굴해서 조사기록하고 보고서를 썼던 일이나 연구를 해서 학위를 받거나 책을 썼던 일들이 보람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공부를 잘했던 우등생은 아니었습니다. 발굴조사 현장에 가고, 박물관에서 유물 정리도 하고, 집회에 참여도 해 보고, 학생회 활동도 하고, 이런저런 동아리 활동들을 하거나 동아리를 만들기도 하고. 하고 싶은 건 다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대학 생활에 후회가 전혀 없다고 자부합니다.

대학 시절 특별한 기억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일산 신도시’ 개발사업의 사전 발굴 조사에 참여한 경험입니다. 과거의 유물을 세상 밖으로 직접 드러냈던 경험은 제 인생의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모교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학교의 성장만큼 학교가 가지는 시간의 깊이도 깊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학교의 역사와 함께 오래된 학교의 유산들을 보존하는 일에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충북대학교 동문과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 주십시오.

사회가 점점 더 각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 동문 선후배님께서도 각자의 위치에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일에 같이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충북대 동문들에게 간단히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연과학대학 천문우주학과 졸업생 김상혁입니다. 1991년 3월에 입학하여 1998년 2월에 졸업했고, 현재 대전에 있는 한국천문연구원 고천문연구센터 책임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에서 근무 중이신데, 지금 맡고 계신 일은 어떤 것 인지요.

저는 2010년에 입사하여 고천문 연구와 천문의기 복원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천문학사와 조선의 천문 관측기기를 복원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고천문연구센터장을 맡아 고천문 연구를 주도했습니다. 지금은 책임연구원으로 인공 지능을 활용한 천문 관련 고전의 번역, 해외의 고천문 유물 조사, 그리고 여타 과학관 및 박물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융합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에서 근무하게 된 계기와 그동안의 주요 이력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천문학뿐만 아니라 역사학에도 관심이 있었기에 자연스럽게 천문기기의 복원 연구를 진행하고 계신 이용삼 교수님의 연구실에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에 진학해서 본격적으로 고천문학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고, 집중적으로 천문기기의 복원과 연구에 나섰습니다.

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3년 동안 모교와 다른 학교에서 강의하다가 2010년에 한국천문연구원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4월부터는 고천문연구센터 센터장으로 3년을 보냈습니다.

이 외에 문화재청 동산문화재 감정 위원,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천문우주학과 겸임교수, 한국천문학회 이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 심사위원 등을 지냈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에서 근무하면서 이론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대표적인 성과로 2011년에는 조선시대 천문역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규표를 연구하여 복원했습니다. 2015년에는 세종 대에 만든 혼상을 복원했고, 2016년에는 장영실이 제작한 흠경각루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해, 2019년에는 실물 크기로 복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2022년에는 다른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흥대용의 혼천시계, 2023년에는 원구형 해시계와 남병철의 혼천의를 복원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고천문기기를 활용한 천체 관측기술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대학 시절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학교가 굉장히 넓어서 다른 단과대학에서 강의를 들어야 하는 경우 늦지 않기 위해 뛰어다녔고, 사회적 이슈에 대한 토론이 활발했고, 밤을 새우며 선후배들과 함께 한 술자리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던 추억이 남아 있습니다.

대학 시절 특별한 기억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2학년 때 진행된 ‘관측법’ 수업이 기억에 많이 납니다. 경기도 일산에 있는 천문대에 가서 밤새워 하늘을 관측하는 강의였습니다.

모교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모교가 동문의 자랑으로 우뚝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상호작용과 협력을 통해 발전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충북대학교 동문과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 주십시오.

대학 생활 동안 늘 가슴속에 간직했던 ‘지식인으로 만족하지 말고 실천하는 지식인, 즉 지성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입니다. 동문과 후배들의 참여는 우리 사회가 진일보하고 발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김영관 편집위원〉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충북경찰청
신효섭(행정 88) 경무관

충북대 동문들에게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행정학과 88학번 신효섭입니다. 이렇게 동문회보를 통해 선후배님들을 뵈게 돼 정말 행복하고 기쁩니다. 지금 제가 근무하는 곳은 충북경찰청입니다. 1월말에 정든 고향을 떠나 새로운 곳에서 근무를 앞두고 있습니다.

충북경찰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으로 활동 중인데 어떤 일을 하는지 알려주시지요.

일반 기업체와 비교해 말씀드리면, 총무부와 비슷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될 거 같습니다. 충북경찰청의 기획, 인사, 경무, 경리, 교육, 장비 등 여러 업무를 처리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어떤 계기로 경찰에 입문했고, 어떤 과정을 거치셨는지요.

제가 어릴 적 살던 곳은 동서남북이 산으로 둘러싸인 시골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가끔씩 훈련하는 군인들을

목격하거나, 옛날에 지소라고 하는 곳에서 경찰분들이 순찰을 도는 것을 종종 봤습니다. 그때부터 어린 마음에 제복에 대한 막연한 동경심이 있었고, 대학에 들어온 뒤 우연한 자리에서 후배의 도움으로 경찰간부 시험을 알게 됐습니다. 그 이후 본격적으로 경찰 시험을 준비해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경찰 생활을 하면서 보람 있던 일이나 아쉬웠던 일, 앞으로의 포부가 있으시다면.

2013년 충북경찰청 수사과에 근무할 때 모르는 분한테 제 이름으로 편지 한 통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편지 내용은 그분께 피해를 주고 연락을 끊고 도망간 사람이 있는데 잡아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수사를 해 보니 피의자는 해외로 도피한 상태였습니다. 인터폴 공조를 통해 그 피의자를 검거한 뒤 국내로 압송해 법의 심판을 받게 했습니다. 그 일로 피해자의 억울한 마음을 조금 이나마 달래 주었던 일이 제 기억속에 오랫동안 자리잡고 있습니다.

경무관님의 대학 시절은 어땠나요?

군 제대 후 학교에서 운영하는 고시원에 들어가 2년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2년 동안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많은 배려를 해 준 덕분에 오늘의 영광이 저에게 있는 거 같습니다. 입학 후 1학년 때 미팅을 한 번 했는데, 그것 빼고 미팅을 한 적이 없어 아쉬움으로 많이 남습니다. 하하하.

모교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후배들이 마음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많이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충북대 동문과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 주시지요.

동문 선후배님 모두 갑진년 새해 건강하시고, 뜻하는 모든 것들이 성취되는 즐겁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또한 아직 공부를 하고 있는 후배님들은 한강 이남의 최고 명문은 충북대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금지와 자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 목표를 반드시 이루기를 바랍니다.

〈이 인터뷰는 신효섭 동문이 강원경찰청으로 발령되기 전 1월에 진행되었습니다〉



충청북도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국문 88)

동문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국어국문학과 88학번으로 1992년 졸업하였고, 올해 다시 위기관리학 박사과정 신입생이 된 오경숙입니다.

학교 졸업 후 기업, 시민사회단체와 일자리 분야를 합쳐 30년 정도 직업 생활을 하였고, 2024년 1월에 개방형 공무원인 충청북도 양성평등가족정책관에 임용되었습니다.

대학생활은 어떠했나요?

사실 전공 수업에 열심이었던 것은 아니고, 입학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문학회에 가입하면서 자연스럽게 학생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3학년 때에는 인문대학 부학생회장으로 선출되어 활동하였습니다. 후보가 되어 학생회 선거도 치르고, 임원으로 다양한 행사를 추진

하면서 이후 사회생활에 필요한 리더십도 쌓은 것 같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어떤 일을 하셨나요? 그리고 그 일을 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국문과 전공 덕분에 기업체에서 고객관리신문도 만들고, 청년단체를 창립하여 성인한글학교, 저소득 자녀를 위한 무료공부방 등 주민활동도 하였습니다. 이후 일자리 분야에서 21년차 활동을 하었는데, 취약계층 일자리부터 사회적 일자리 등 다양한 영역의 사업을 해 보았습니다. 최근까지 산업단지형 취업전문기관인 '충북 여성 새로 일하기 지원본부'의 본부장으로 15년 동안 일하면서 전국 선도모델도 만들고, 좋은 성과도 창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보람됐던 일은 무엇인가요?

원래 교사가 꿈이었기에 '사람의 성장'을 보는 것이 가장 보람 있는 일이었습니다. 성인한글학교, 공부방 교사 역할에서뿐만 아니라, 일자리 분야에서 취약계층부터 경력단절여성, 기업체, 공공영역의 주체 등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 '다름'이 '시너지'가 되어 생각했던 이상의 성과를 창출하면서 '낯설 때로는 불편함'이 성장의 동력일 수 있음을 경험했습니다.

현재 충청북도 양성평등가족정책관이신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충청북도 양성평등가족정책관은 성평등, 여성 권익, 여성 일자리와 다양한 가족 지원, 청소년사업 등 중앙정부로 비유해 보자면 여성가족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특히, 성인지적 관점으로 일을 해야 하는 부서다 보니 민간 전문가를 개방형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책관으로 일하면서 그동안 여성 분야, 경제 분야, 노동 분야, 시민사회단체 등 민간 영역의 경험과 다양한 지역네트워크를 잘 활용해서 더 나은 충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스트레스를 푸는 나만의 방법은?

스트레스가 높은 편은 아닙니다. 다만 활동하는 모습을 보고 대부분 외향형 성격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 성격은 내향형이라 혼자 생각하고 정리하는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편입니다.

코로나19 때부터 보타니컬아트, 연필드로잉을 했던 게 도움이 되었고, 직업상담 영역에 있다 보니 자격증을 하나 하나 따는 것도 재미있었습니다. 지금은 국가자격증을 10개 넘게 갖고 있습니다.

학교 후배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요즘은 '경력직 취업시장'이다 보니 사회초년생 입장에서 경쟁도 치열하고, 구체적인 취업 정보가 부족해 불안감이 높고, 방법도 찾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직업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해 보자면 후배들이 좀 더 자신을 믿고 적극적으로 행동해 보길 권합니다. '이불 밖은 위험해'라는 말이 있는데 오히려 저는 '집 밖으로 나와 세상을 경험해 보라'고 하고 싶습니다. 세대와 경험이 다른 사람들을 많이 만나 보고 이야기도 들어 보면서 나를 이해하고, 나의 쓰임을 결정하는 삶의 주인이 되는 행동을 하자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교에 바라는 것이 있으시다면?

지역에서 활동하다 보니 다양한 분야에서 '동문'이라는 이유로 반갑게 맞아 주시는 선후배님들 덕분에 참 든든합니다. 하지만 재학생들에게 동문회는 먼 느낌이 아닐까 합니다. 재학생들이 지역, 또는 전공, 진로에 대한 생각을 확장할 수 있도록 선배 동문들을 만나 볼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합니다.



〈장충덕 편집위원〉



충북대 동문들에게 간단히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경영학과 79학번 이기동입니다. 이렇게 동문 여러분들께 인사하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저는 군제대 후 84년도 총학생회장을 역임하였으며 졸업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근무하는 동안 노조위원장을 역임하고 고향인 음성군에서 지방정치에 입문하여 충북도의원을 시작으로 2008년 충청북도의회 의장을 당시 최연소인 49세에 역임하였습니다. 이후 여러 공공기관 임원을 역임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충북교통방송에서 재직 중이신데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라디오 방송 채널은 165개가 있습니다. 한국교통방송국은 총 12개의 지방방송을 운영 중에 있으며 그중 충북교통방송은 12번째로 개국한 가장 마지막에 생긴 4년 차 방송국입니다. 현재 충북교통방송국은 청취율 24%로서 전국 최고로,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분들의 많은 사랑으로 고정 채널이 되어 있고 충청도민의 교통안전과 편리한 교통 길라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유사시 재난 안전과 국민들의 공익방송 즉, 대국민 서비스를 하고 있는 교통방송입니다.

과거 대학 시절 이룬 성과와 특별한 기억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대학 시절 총학생회장을 맡아 삶의 자부심으로 느낄 만큼 큰 성과로서는 충북대학교 중앙도서관 건립과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서관 건립과 관련하여 당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때 학교 관계자 분들의 요청으로 총학생회의 역할이 필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당시 김종호 국회의원을 수차례 걸쳐서 총학생회 임원들과 함께 만나 우리 학교 중앙도서관 건설 사업이 꼭 조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여 조기 건립되는 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한 충북대학교의 상징인 황소상 건립비용 모금운동을 최초로 펼쳐서 초석을 다지는 노력을 했던 일들이

보람 있는 성과라 생각합니다. 제 인생에서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을 역임한 것이 가장 자랑스럽고 의미 있던 일 중 하나입니다. 좋은 친구들·후배들과 함께 총학생회를 이끌며 학교와 동문들의 발전을 함께하며 대학 시절을 보낸 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잘 따라주었던 총학생회 임원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당시에는 민주화운동 등 학생운동이 활발한 때였습니다. 하지만 “운동 참여도 좋지만 학과 강의는 필수이니 꼭 강의 후 남는 시간에 하라고” 하며 “우리 부모님들의 피와 땀으로 등록금을 주신 건데 졸업 후도 생각하자”라고 총학생회 동료들에게 선한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모교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작금의 사회현상을 살펴보면 우리 대학의 의대 정원이 49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의료 수요가 현실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의대 정원이 대폭적으로 확대되어야만 합니다. 앞으로도 충북대 의대 정원 또한 2배 이상 확대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학교가 지방 거점 학교로 교통대와 통합의 길을 걷고 있는데 대승적 차원에서 국립대 거점대학으로 더욱더 발전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충북대학교 동문과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 주십시오.

대학 진학을 인 서울을 목표로 하는 것은 현재도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재수, 삼수 등 거쳐 인 서울을 갈망했지만 현재는 우리대학의 상대적학업 여건이 장학, 산학협력, 환경 등 서울의 우수 대학들보다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기업과 사기업 등의 신규 인력 지역 할당 국가정책이나 인력 운영에 관한 협의 시 지방 국공립대 학생 우선 선발 등은 지방 발전을 위하고 지방 대학들의 발전을 위한 대안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충북대인이라는 자긍심을 가진다면 비전 있는 충북대학교로 성장할 것입니다. 저 또한 앞으로 모교를 위해 헌신하는 선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북대 동문들에게 간단히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79학번 행정학과 유윤기입니다. 동문 여러분들께 이렇게 인사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83년 본교를 졸업 후 서울은행으로 입행하여 은행 간 합병으로 하나은행 지점장으로 퇴직하기까지 31년간 같은 은행에서 일하였습니다. 한 직장을 30년 이상 다녔으니 그 성실성에 스스로 대견스러워 하기도 합니다. 2023년 1월부터는 청주시시설공단에서 임기 3년의 이사장으로서 경영 전반을 맡고 있습니다.

청주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신데 공단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공단은 지난 2000년 설립되어 88만 청주시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공시설물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입니다. 2023년부터 현재 직무를 맡고 있으며 '공공시설의 지속 가능한 가치 창출로 시민행복 증진'을 미션으로 정하고 시민의 행복을 풍요롭게 선도하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경영과 효율적 시설관리를 통하여 고객에게 기쁨 주고 사랑받는 청주시시설공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금융인으로 근무하면서 이룬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금융인으로서 이룬 성과라고 하면 부끄럽지만 특별히 내세울 만한 것이 없습니다. 어쩌면 무탈하게 앞서지도 뒤쳐지지도 않고 부끄럼 없이 30여 년의 직장생활을 마감한 것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우선 현재 맡고 있는 청주시시설공단 이사장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공공기관의 혁신에 대하여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대학 시절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79학번 사회과학대학 사회계열로 입학하여 79년 10·26사태로 이어진 계엄령과 휴교령으로 이듬해 3월에야 등

등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5·18로 다시 학교는 휴교령이 내려져서 1, 2학년은 학교 생활이 거의 없었습니다. 약간의 정의감으로 선배따라 시작한 학생활동으로 3~4학년 때 맡았던 총학생장 출마와 역임은 저의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경험이었습니다.

대학 시절 특별한 기억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총학생회장을 맡아서 개신축제를 주관하면서 당시 유행처럼 있었던 스폰서를 받지 않았습니다. 축제 팸플릿에 후원업체 명단이 얼마나 많이 올라가느냐가 축제 주관자의 유능함의 척도이기도 하였는데 저는 학생들의 축제 팸플릿에 상업성 광고를 넣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여 규모를 줄일 지언정 스폰서를 받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대학생대표 타이틀로 당시에는 쉽지 않았던 보름간의 파리와 독일 여행도 좋은 추억으로 있습니다. 후에 알고 보니 이는 전두환 정권의 학생 유회정책의 하나이기도 하였습니다.

모교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학생은 물론 교수님과 교직원 분들 포함 모든 구성원들이 충북대학교에 대한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질 때 자신에 대하여 충실해질 수 있습니다. 최고라는 인식은 최고의 목표를 갖고 최고로 행동하여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후배들에게 최고의 목표를 가질 수 있도록 최고 수준의 교육을 부탁드립니다.

충북대학교 동문과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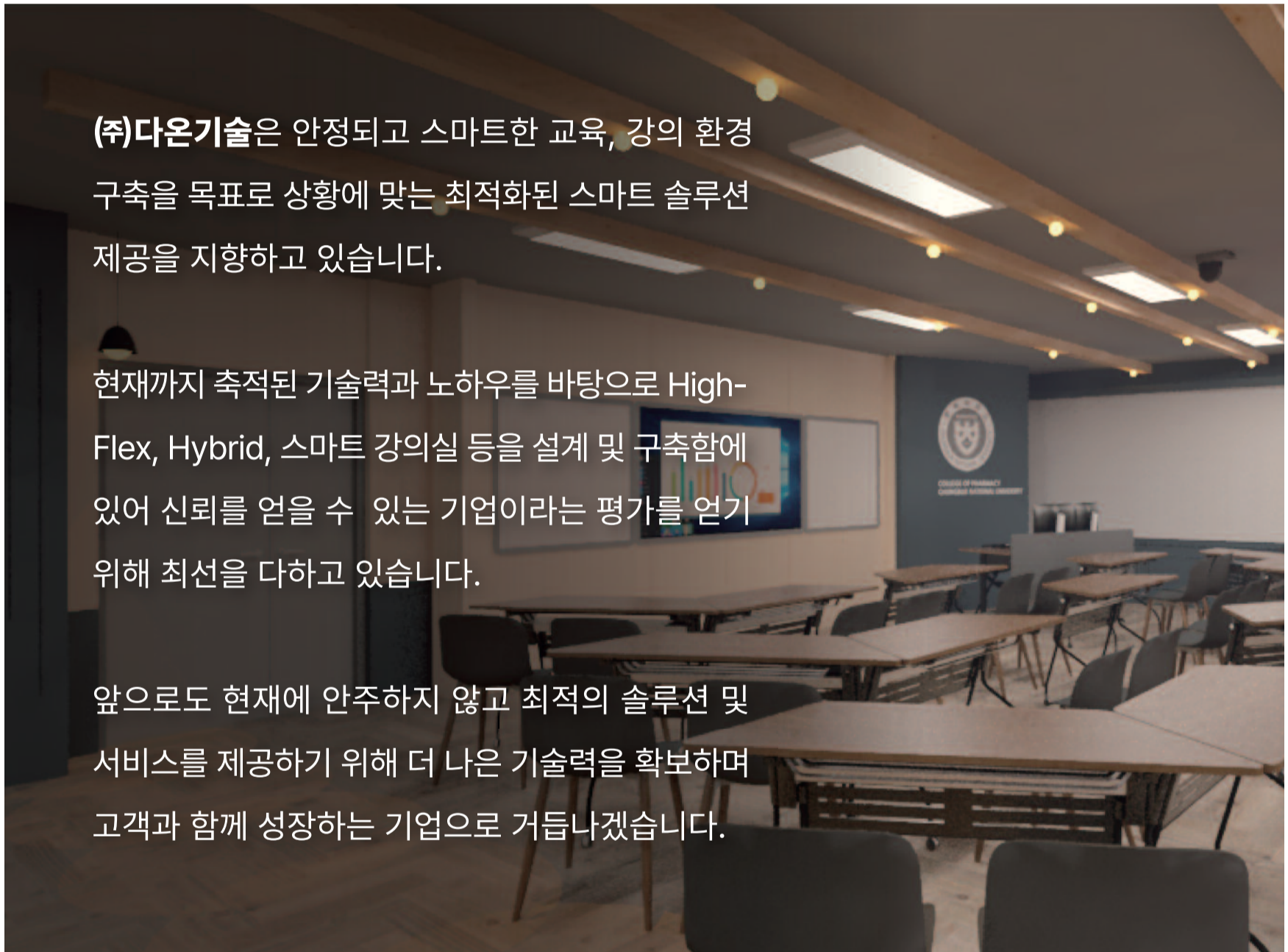
꿈을 갖자 그리고 행동해라. 현재의 나는 최고가 아니지만 내일의 나는 최고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기죽지 말고 최고가 되도록 노력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목표를 모두가 달성할 수 있지는 않겠지만 목표를 갖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성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동문회는 사회적 자원을 키우고 유지할 수 있는 아주 저렴한 네트워크입니다. <김두환 편집위원>



(주)다운기술은 안정되고 스마트한 교육, 강의 환경 구축을 목표로 상황에 맞는 최적화된 스마트 솔루션 제공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축적된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High-Flex, Hybrid, 스마트 강의실 등을 설계 및 구축함에 있어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기업이라는 평가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최적의 솔루션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 나은 기술력을 확보하며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주) 다운기술
 T. 070-7807-6464
 F. 043-900-6464
 A. 충북 청주시 상당구 꽃산서로 24, 107호



(주)다운기술

2024년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을 만나다



총학생회장 안채환

- 충북 청주 출생
- 오송초등학교 졸업
- 한국교원대학교부설미호중학교 졸업
- 오송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정보학과 재학

안녕하세요?

충북대 총학생회장으로서 어떤 포부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지난해 충북대학교 총학생회는 개표 가능 투표율 미달로 인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총학생회의 부재로 '학생 권익 보장과 대변'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웠습니다. 1년 만에 출범한 총학생회인 만큼, '학생 권익 보장과 대변'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학생들에게 약속한 72개 공약을 비롯해 다양한 학생 정책 사업을 추진해 학생을 위한 자치기구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총학생회의 이름은 '개화'이다.

개화는 '새로움을 열다'라는 뜻을 가진 충북대학교의 상징인 개신에서 출발한 '개신의 꽃'입니다. 개화는 새로움을 여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고자 합니다. 올해는 학우분들과 함께 학생이 주인인 충북대학교를 위해 '개신의 변화'를 만들고, '꽃'과 같은 대학 생활을 더욱 아름답게 할 '개신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후보 당시 공약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1) 학생이 우선인 글로벌 사업 : 개화가 만들고자 하는 '학생이 주인인 충북대학교'를 위해 가장 중요한 공약이자

정책입니다. 많은 학생이 아직도 사업에 대한 걱정이 매우 높은 만큼, 총학생회가 사업 과정에 직접 참여해 학생이 우선인 글로벌 사업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학생이 원하지 않은 통합에서, 학생이 피해받는 상황은 절대 없습니다.

2) 시험 기간 신도서관 24시간 운영 : 매년 총학생회에서 제시하였으나, 해결이 되고 있지 않은 총학생회의 숙원 사업입니다. 24시간 운영을 위한 방안을 찾고, 사용률이 가장 높은 시험 기간부터 진행하여 불이 꺼지지 않는 학문의 전당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겠습니다.

3) 성적 정정 신청 시스템 : 오류가 있는 성적을 바로 잡는 것은 학생에게 매우 중요하며 당연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성적 정정 신청은 메일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기 어려운 방법이었습니다. 충북대학교 개신누리 사이트에 시스템을 도입하여 당연한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4) 학생 피해 문제 대응 체계화 : 배움의 터전인 대학에서 학생이 피해받는 일은 없어야 하며, 만약 발생할 경우, 학생회가 관심을 가지고 피해가 더 커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피해 문제 대응 단계를 체계화하여 학생 권익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5) 수강 취소 기간 연장 : 짧은 수강 취소 기간은 학생의 강의 선택의 폭을 좁히고, 강의 일정에 따라 오리엔테이션을 듣지 못하고 반강제적으로 강의를 수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수강 취소 기간을 기존보다 더욱 연장해 강의 선택 폭을 넓히고자 합니다.

6) 찾아가는 총학생회 : 지금까지 총학생회는 학생과의 소통을 강조했지만, 소통을 위해 학생에게 다가가는 것이 아닌 학생이 학생회에 다가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총학생회가 학생에게 먼저 다가가 쌍방향 소통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소통뿐만 아니라 대학과 학생 사회 발전을 위한 토론의 시간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학생회장을 해야겠다고 결심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2023년 경영정보학과 학생회장을 역임했습니다. 지난해 대학의 글로벌 대학30 사업 추진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매우 관심 있게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학생에 의해, 학생을 위해 존재하는 대학에서, 학생은 뒷전이라는 점을 가장 많이 느꼈습니다. 대학이 진정한 진리의 상아탑으로 불리기 위해서는 학생이 주인인 대학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를 충북대학교 학생을 대표하는 총학생회장이 되어 올해 학생이 우선인 글로벌 사업과 학생이

주인인 충북대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생회장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요즘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무엇보다 취업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학업뿐만 아니라, 각종 자격증과 어학 점수 그리고 대외활동 등 매일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학문 탐구와 정진을 위한 대학이 사회 진출을 위한 발판이 되어가는 것 같아 매우 아쉽습니다.

학생들의 취업 고민을 덜기 위해 총학생회에서도 학내 취업 관련 부서와 연계를 통해 다양한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취업 정책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충북대 글로벌대학30 선정과 관련하여 기대되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요?

많은 학생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통대학교와 통합을 전제로 한 글로벌 대학30 사업에 본지정되었습니다.

올해는 학생이 대학에 목소리를 내기 전에, 대학이 먼저 학생의 목소리를 듣는 소통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학으로 변화하길 바랍니다. 학생과 어떻게 소통할지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또한, 아직도 많은 학생이 사업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자료 공개를 통해 투명한 사업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 통합이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데 학생회의 입장은 어떻게 되시나요?

학생이 지속해서 요구하는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생의 의견을 수렴해 대학으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또한, 모든 학생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학생회에서도 다양한 의견 수렴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대학 통합이 추진되고 있으나, 아직 통합의 단점과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총학생회에서 통합시 학생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쳐 우려하는 사항을 수집하고 생산 중입니다. 이를 대학에 전달하고 총학생회에서도 학생 보호를 위한 정책 모델 개발에 참고할 것입니다.

대학이 반드시 지키겠다고 학생과 약속한 '교명 변경 없음, 재학생 졸업장 분리, 의사에 반하는 캠퍼스 재배치 없음'이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총학생회가 사업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사업 경과를 계속 지켜보며 학생이 피해받는 대학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확실하게 사업에 대응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본격적인 대학 통합이 진행됨에 따라, 올해는 충북대학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충북대학교 학생을 대표하는 총학생회가 학생의 의견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사업 과정에 학생의 목소리를 확실히 반영하지 못한다면, 학생이 피해받는 통합만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학생이 우선인 글로벌 사업과 학생이 주인인 충북대학교를 총학생회 최우선 정책 사업으로 지정해 학생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학생에게 약속한 72개 공약을 지키기 위해 총학생회 각 부서에서 공약 이행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는 중입니다. 학생이 즐겁고, 편안한 대학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항상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대학에서 총학생회장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충북대학교 전체 학생의 직접 선거로 선출된 학생의 대표자입니다.

학생 권익 보장과 대변을 위해 총학생회장 개인의 의견을 대학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닌, 전체 학생 의견을 수렴해 대학에 전달해야 합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은 학생들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약 및 정책 사업을 완벽하게 이행해 학생에게 신뢰받는 총학생회가 되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는 총학생회장의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박준영 편집위원)





충북대학교 자율주행 Clothoid, Clothoid-R, Selfcar team

현재 충북대학교 자율주행 관련하여 동아리 및 팀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충북대학교 Clothoid 팀은 기석철 교수님께서 지도하시는 자율주행차 연구실이 주축이 되어 자율주행 기술 연구와 대회에 참여를 하고 있다.

2012년 현대자동차 자율주행 챌린지 준우승부터, 2021년 현대자동차 자율주행 챌린지 준우승, 2023 Autoware Challenge 3위 수상 등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뛰어난 성적을 인정받고 있으며 계속해서 관련 대회들에 참여하고 있다.

이를 이어받아 지능로봇공학과, 전자공학부 학부생을 중심으로 Clothoid-R 동아리를 조직하여 1/2스케일카를 활용한 자율주행 레이싱 연구도 진행하고 있으며, 국내 유일 10대 이상 동시주행을 하는 자율주행로봇레이스 대회에 참여하여 2023년 첫 참가에도 1차대회 3위라는 값진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지능로봇공학과 소속인 Selfcar 팀은, 매년 국토교통부에서 주최하는 '대학생 창작 모빌리티 경진대회'를 준비하고 참가하고자 하는 학생들로 구성된 팀이다. 2018년 국제 대학생 창작 자동차 경진대회 '6위', 2018 한양대학교 지능형 로봇대회 '특별상', 2019 국제 대학생 창작 자동차 경진대회 '대상' 등의 수상 경력이 있으며, 이후 꾸준히 국내외의 다양한 로봇 자율주행 관련 대회에 참가하고 있다. 현재 지능로봇공학과를 포함한 전자공학부, 정보통신공학부 학부생 10명 내외로 팀을 구성하고 있다.

자율주행 연구에 필요한 ROS, MORAI

등의 멘토링을 시작으로, 대회의 미션을 해결하기 위해 1년간의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활동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Selfcar 팀은 발 빠른 기술에 맞춰 문제를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며 다양한 해결 방법을 통해 새로운 알고리즘 개발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언론보도에도 충북대학교의 자율주행 관련 많은 홍보자료가 나오고 있으며, 타 대학에 손색없는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충북대학교가 타 대학에 비해 자율주행 관련(AI) 장점이 있다면 무엇인지요?

먼저 충북대학교는 오창캠퍼스에 자율주행 테스트베드인 C-track을 보유하고 있다. C-track은 충북대가 국내 대학 최초로 준공한 자율주행 테스트베드로, 83,096㎡ 부지에 실제 도로 환경을 반영한 5개 구역 16종 시험로와 차량 개조·시스템 조정이 가능한 시험동 및 시험차량 모니터링을 위한 관제센터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율주행 연구개발을 위한 실차 실험 인프라는 국내 최고라고 말할 수 있다. 이곳을 활용해 학부는 동아리 중심, 대학원은 연구실을 중심으로 각종 자율주행 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이 공간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자율주행 기술을 경험하고, 실험해 볼 수 있는 자율주행 PG응용 강좌를 개설하여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1/2 스케일 카를 이용하여 실제 시험장에서 자율주행 차를 구동해 봄으로써 다른 대학에서 하기 힘든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원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미래형자동차 R&D 전문인력양성 사업(미래자동차 산업 융합교육과정, 산학연계, 기업수요 대응), 학부는 혁신융합대학(COSS) 사업(융합전공, 각 대학별 특성화 교육, 비교과 및 교과 강좌 개설, 각종 동아리 지원) 등에 참여하고 있어 학생 교육 및 연구와 관련된 지원을 충분히 하고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핵심 사업의 하나인 자율주행(AI)과 관련하여 현재 충북대학교 차원에서 어떤 지원이 있으며, 향후, 충북대학교에 바라는 지원 방향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최근 교통대학교와 통합이 결정되며, 오창에 미래모빌리티 대학이 신설될 계획이다. 대학과 관련 학과, 우수 교원 총원, 학생 지원 등의 예산이 대폭 확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위에서 말씀드린 각종 학생지원 사업을 통해 동아리 및 경진대회 준비에 필요한 다양한 부분을 지원하고 있다. 향후 바라는 부분은, 오창 캠퍼스를 중심으로 자율주행 관련 인프라가 조성되고 있으므로, 셔틀버스, 기숙사, 식당, 연구실 등 학생들의 정주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충북대학교 자율주행 완성도는 어느 정도까지 왔으며, 자율주행 자동차 분야의 발전에 따른 사회적 파급력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충북대학교 자율주행 알고리즘은 현재 4단계 자율주행 수준에 와 있으며,

이제는 다양한 상황에서의 자율주행, 자율주행의 한계를 시험할 수 있는 자율주행 레이싱 분야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자율주행 자동차 분야의 발전은 많은 부분에서 파급력을 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하며, 자율주행은 단순히 차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인프라와 함께 수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도로 교통체계, 신호체계 등이 변화할 것이다.

또한 운송업, 여객업종의 변화도 클 것으로 예상되며, 자율주행을 활용해 더 효율적인 운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중교통 소외지에 있어 불편함을 겪는 사람들도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이 될 것이다.

충북대학교 자율주행 관련 앞으로의 어떤 활동 계획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Clothoid 팀은 2024 대학생 자율주행 경진대회에 참여할 예정이다.

해당 대회는 서류 심사 예선을 거쳐, 충북대를 포함한 총 10개 대학 본선 진출팀이 확정되었다. 이는 자율주행 차를 이용한 레이싱 경기를 하는 대회이며, 10개 팀 중 2개 팀이 충북대학교에서 참여하는 만큼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Clothoid-R 팀은 2024 로봇레이스 대회에 참여할 예정이다.

총 4회 개최 예정인 해당 대회는 3월에 충북대학교 C-track에서 1차 대회가 치러지고, 5월에는 제주도에서 대회가 치러질 예정으로 2년차에 접어든 만큼 조금 더 발전된 알고리즘과 기술을 통해 사고 없이 수상을 하는 것이 목표이다. <박준영 편집위원>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자 중심으로 연구지원을 든든하게

중이없는 연구비관리시스템 확대 시행
 온라인 기반 비대면 행정업무 강화
 찾아가는 연구비관리시스템 교육 확대
 웹 기반의 시스템 단계적 전환

산학협력 Gap-Zero 플랫폼 고도화
 페이퍼리스 기술이전관리시스템 전면 도입
 대학 창업지원 통합플랫폼 고도화
 산학협력성과통합관리시스템 활성화

연구자 맞춤형 지원 강화
 연구분야별 과제 공고 연구자 편셋 안내
 연구자 우수 연구실적 홍보
 연구지원 연속성 강화

글로벌 연구역량 인프라 구축
 우수 외국인 연구자 정착 및 해외 공동연구 교류 지원
 신진연구자 초기 정착 지원
 연구시설 장비비 통합관리제 시행

수익형 모델로 기술사업화를 단단하게

수익형 산학협력단 강화
 대학내 기술사업화 지원 사업 연계 활용
 중대형 기술이전 책임자 적극 지원
 우수기술 해외 특허출원
 교내 구성원 대상 수익 사업 확대

글로벌 창업생태계 구축
 교원 창업 관련 제도 개편을 통한 창업 활성화
 예비 창업자 발굴부터 글로벌 창업까지 단계별 지원
 창업지원 관련 사업 연계 강화

산학협력 수요 기업 발굴 및 지원
 산학협력 고도화 및 선도적 기업 발굴
 긴밀한 협력 관계 유지
 사업단 확대 연계 방안 도출

글로벌 지자체 연계 협력 강화
 충북 지역 주력산업 및 특화분야 연계성 강화
 글로벌대학 30사업 내 지역산업 육성 협력
 RISE 협업요청 대비 체제 구축



주요연혁



주요연혁

교내 연구자에게 연구기획, 연구관리, 연구성과확산에 이르는 전주기적 R&D 관리 제공

- 연구기획협약**
연구(사업)공모 안내
산학협력 연구기획 지원
과제신청 및 협약
- 연구지원관리**
연구비(사업비) 집행 및 관리
연구자 애로사항 해결
찾아가는 연구지원 서비스
- 연구결과 성과 확산**
직무발명 및 기술사업화
교원 및 학생창업 지원
기술지주회사 운영

연구지원 절차

- 과제신청
연구과제 신청 접수
- 과제선정 및 계약
과제선정 안내
수정 계획서 제출
계약 체결
- 연구비 입금
연구비 중앙관리 계좌 입금
입금 안내
- 연구수행 및 연구비 집행
연구비 지급신청서 제출
적정성 검토 및 지출
- 협약 변경
연구계획 변경
- 결과보고서 제출
연구결과보고서 제출
집행 증빙서류 회계감사기관 제출

주요성과

- 중이없는 연구비관리시스템 구축
- 전임교원 1인당 및 연구비 주주 규모 대비 최근 3년 연속 전국 1위
- 기술이전 수입료 전국 1위 30억원 돌파
전국 거점 국립대 기준 최상위 랭크 달성

2019	1,287
2020	1,621
2021	2,381
2022	2,785
2023	3,256

연도별 평균 매출(백만원)

주요사업

- 충북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 기술사업화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발전 및 고급 일자리 창출
-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BRIDGE3.0)사업**
 - 대학과 지역의 상생협력을 통한 선순환적 혁신생태계 구축
 - 수요 맞춤형 창의적 자산 실용화를 통한 대학의 수익창출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실험실 특화형 창업 선도대학 사업**
 - 대학 실험실이 보유한 우수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고부가가치 기술혁신형 창업 활성화
 - 대학 인사, 학사제도 개편, 실전창업교육, 기술창업 전문인력 확보, 후속 R&D 지원 등을 통해 실험실 창업에 특화된 창업선도대학 육성

- 이노폴리스캠퍼스 사업(470백만원)
- 기술이전R&BD(700백만원)
- 지역특성과육성(840백만원)
- 창의적 자산 발굴 기획
- 창의적 자산 고도화
- 창의적 자산 기술사업화 후속 지원
- 실험실 R&D 자금 지원
- 실전 창업 지원
- 폐쇄형 초기창업패키지사업 연계